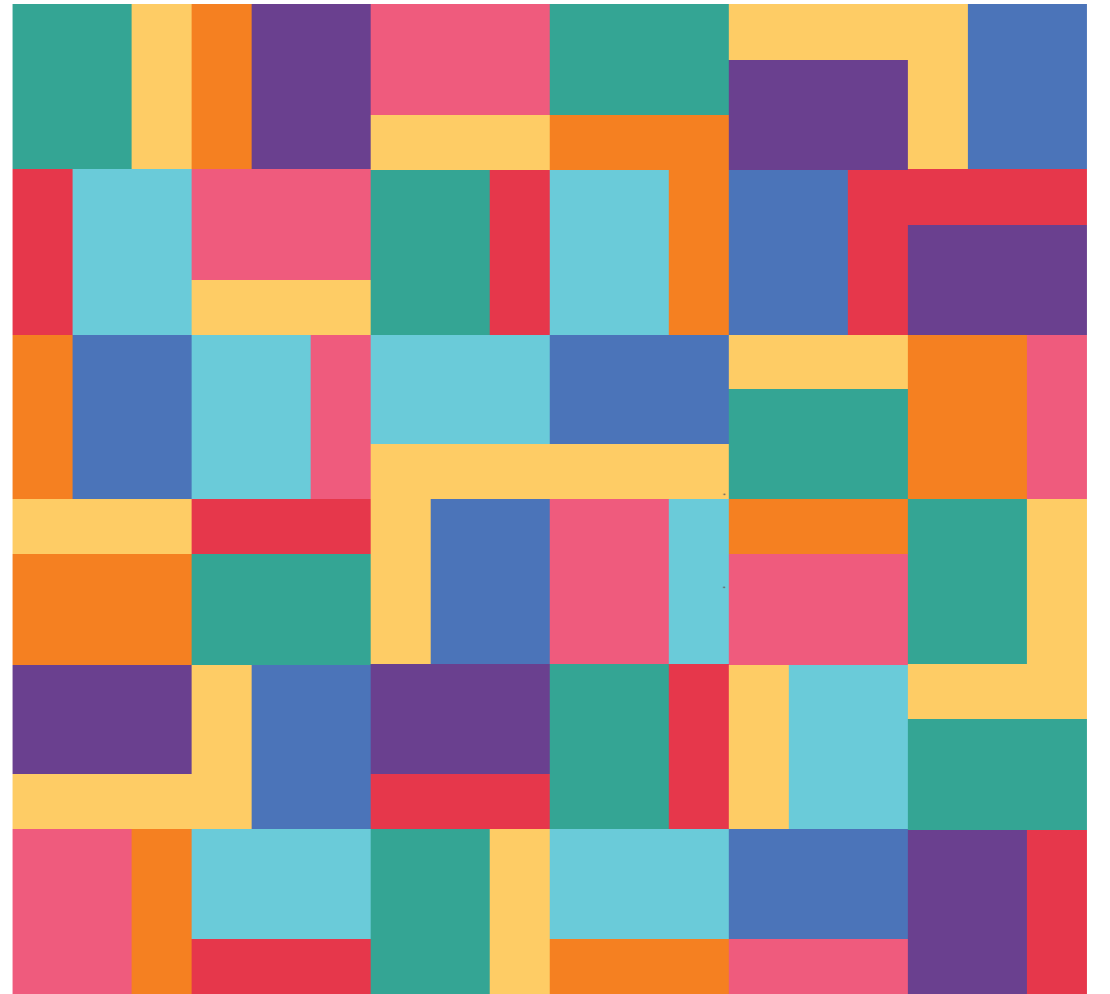




100주년 기념사업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2022년 7월 6일(수)~7일(목)
파주 지지항 및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 목 적

-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한 평화 비전 수립, 여성의 평화운동 확산
-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운동 확산 및 평화 감수성 향상
-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 이해를 통한 화해 기반 조성
- 북한 · 중국 · 미주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여성들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운동의 새 지평 마련

2017
한라산
한국YWCA연합회

- 주제 : 전쟁/분단
- 특성 : - 한라산, 백록담에서 평화를 열다
- YWCA의 평화운동 인식 확산

2018
지리산
광주YWCA

- 주제 : 남남갈등
- 특성 : - 어머니 산, 지리산에서 평화를 외치다
- 남한 백두대간의 시작점, 영신봉에서 남남의 화해 기반 조성

2019
태백산
서울YWCA

- 주제 : 디아스포라
- 특성 : - 하나였음의 기원, 평화를 꿈꾸다
- 한민족여성모임 25주년

2020
설악산(묘향산)
광주YWCA

- 주제 : 상처 회복
- 특성 : - 평화를 바라보다
- 전쟁, 연령, 성 등 상처와 아픔으로부터의 치유

2021
금강산(칠보산)
서울YW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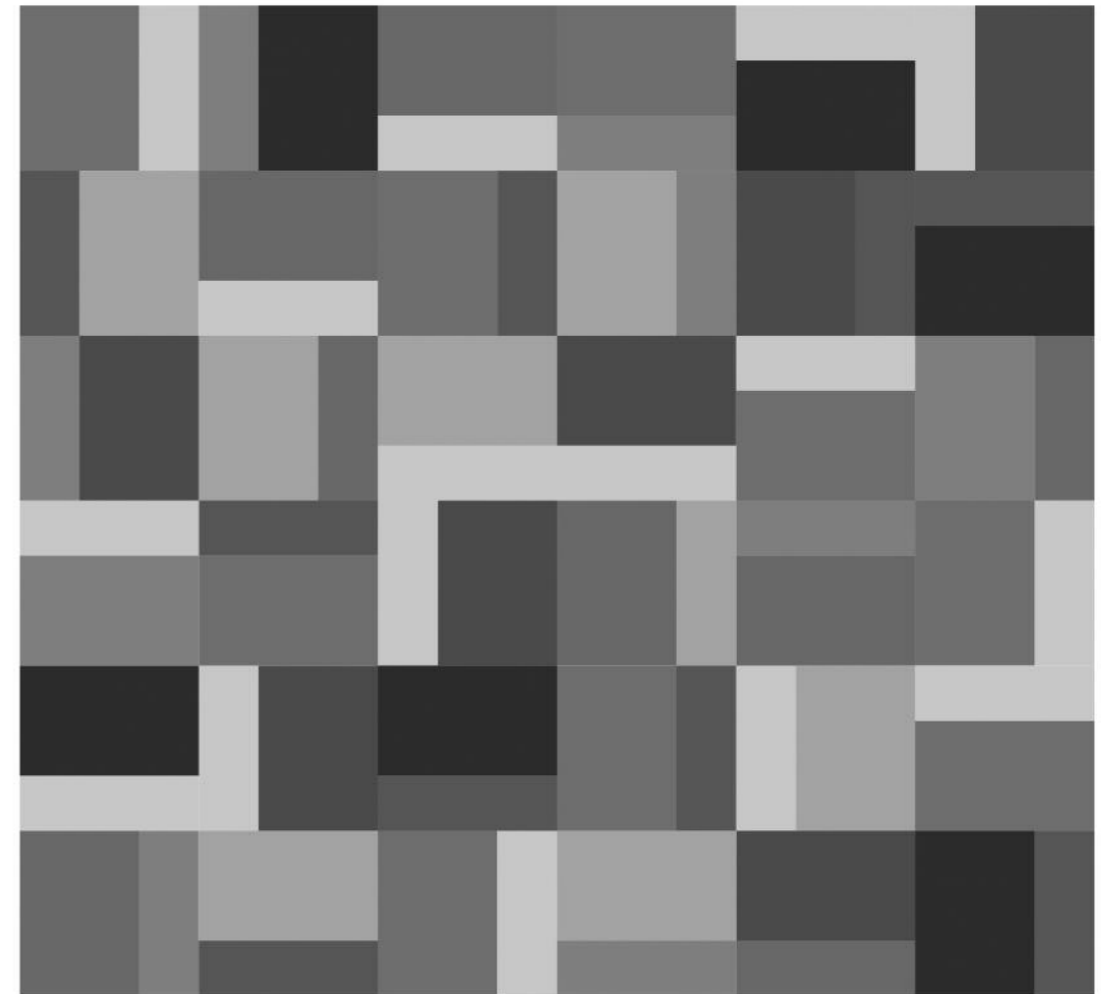
- 주제 : 합일-입산
- 특성 : - 드디어 평화를 만나다
- 북한 백두대간과의 첫 만남
- 자연과 인간의 만남, 합일

2022
백두산
한국YWCA연합회

- 주제 : 합일-평화통일
- 특성 : -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다
- 한국YWCA 100년 이후, 미래를 향한 발돋움과 평화 선포

100주년 기념사업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2022년 7월 6일(수)~7일(목)
파주 지지향 및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4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일정

국제여성평화포럼

- 7 YWCA 국제여성평화포럼 프로그램 안내
8 개회사
10 기조발제 : 여성이 만드는 평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17 패널 I .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전쟁 속 복구 활동
20 패널 II . 이스라엘 통치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평화 활동
23 패널 III . 일본 여성들의 평화와 헌법 수호 활동
26 패널 IV . 한반도 여성들의 평화 활동과 전망

29 YWCA Women Peace Forum Program
30 Opening Remarks
32 Keynote Speech : Peace Made by Women, How Is It Sustainable?
41 Panel I . Restorative Movement of Ukrainian Women in War
44 Panel II . YWCA Palestine's Peace activities under Israeli rule
48 Panel III . Work for Peace and Protection of Japanese Constitution
51 Panel IV . Peace Activities of Wome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ospect

여성평화기도회

- 57 여성평화기도회 순서

여성평화순례

- 63 여성평화순례 안내
64 여성평화순례 코스 안내와 퍼포먼스
66 2017~2021 여성평화순례 소개
68 YWCA 여성평화선언문
73 YWCA 여성평화순례자 명단
76 YWCA 여성평화기도문
77 조각보 노래

100주년 기념사업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100주년 기념사업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 일시: 2022년 7월 6일(수) - 7월 7일(목)
- 장소: 파주 지지항 및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참석: YWCA 평화순례단 100명
- 목적
 - 한국YWCA 100주년의 평화통일을 향한 여성들의 메시지 확산
 - 평화통일 결단과 비전 수립 및 연대 강화
- 일정

국제여성평화포럼

날짜	시간	일정
7월 6일(수)	11:30 - 1:20	도착
	1:20 - 2:00	등록
	2:00 - 5:00	YWCA 국제여성평화포럼
	5:00 - 6:00	휴식
	6:00 - 7:30	저녁식사
	7:30 - 8:30	여성평화기도회
	8:30 -	휴식 및 취침
	7월 7일(목)	7:00 - 8:00
8:00 - 8:30		이동(지지항->임진각)
8:30-11:30		YWCA 여성평화순례
11:30-		귀가

100주년기념사업

YWCA 국제여성평화포럼

- 일시: 2022. 7. 6(수) 14:00-17:00
- 장소: 파주 지지향 다목적홀 및 줌 웨비나
- 목적
한반도 평화를 비롯하여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현안에 대한 세계YWCA 여성들의 평화 연대를 위한 담론을 구축하고, 연대와 공동 행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일정

사회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4:00-14:20	개회 및 인사 개회사: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기조발제 여성이 만드는 평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	
14:20-14:50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YWCA 평화통일자문단)
14:50-15:20	질의응답
패널	
15:20-16:10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전쟁 속 복구 활동 : 나탈리아 울리아네츠 (우크라이나YWCA 회장)
	이스라엘 통치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평화 활동 : 아말 타라치 (팔레스타인YWCA 사무총장)
	일본 여성들의 평화와 헌법 수호 활동 : 히구치 사야카 (일본YWCA 부회장)
	한반도 여성들의 평화 활동과 전망 : 이숙진 (전 한국YWCA연합회 위원, 이화여대 강사)
16:10-16:50	질의 및 전체토론
폐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2022년 YWCA 국제여성평화포럼과 여성평화순례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는 창립 95주년인 2017년에 “평화 여성평화순례-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해 한라산으로부터 시작하여 2018년 지리산, 2019년 태백산을 등반하였고, 코로나로 모임이 어려웠던 2020년과 2021년에는 ‘홀로 걷는 평화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95명으로 시작한 평화순례자는 매해 창립 주년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더하여 지난 6년간 총 585명이 되었고, 일반 순례자를 포함하면 약 1천 여 명이 평화순례에 참가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코리아 디아스포라들도 순례자로 함께 하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소명과 염원을 나누며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실천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세계 각지의 전쟁과 분쟁의 상황 가운데 또다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은 혼돈과 죽음을 야기하고, 증오와 갈등을 키워냅니다. 분쟁은 취약한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하며, 여성들과 아이들에게는 이중의 착취와 고통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한반도는 70여 년의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단 속에서 갈등과 반목, 혐오와 대립을 겪으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해왔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비극의 틈새에서,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평화 연대의 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YWCA 국제여성포럼’은 ‘여성이 만드는 평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일본, 한국 등 전쟁과

깊게 연관을 갖고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YWCA 회원국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피해자의 위치를 넘어서서 정의와 변화를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평화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상호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서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염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함은 곧 정의를 위해 일함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픈 곳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고군분투하시는 YWCA 자매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의 현장에 참석해주신 한국YWCA 100명의 평화순례단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한국YWCA와 각 국가 YWCA의 회원님들, 그리고 국내외의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따스한 지지와 자매애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 모든 평화의 행동들이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정의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평화의 기도가 우리의 실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YWCA와 더불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평화의 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YWCA 평화통일자문단

한반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질문에서 시작해보자. 한반도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식민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은 냉전의 두 축으로 갈라져 통치되었고, 곧이어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내전으로 시작한 한국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되었으며,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고 난 이후에야 겨우 잠정적으로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정전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만 하더라도 곧 종전과 평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국제적 수준의 냉전이 한반도에서 작동하게 되면서 남과 북의 정전체제는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세계가 탈냉전으로 변화할 때도 한반도의 냉전은 지속되었고, 최근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남과 북은 이토록 긴 시간동안 서로를 '적'으로 규정지며 살아왔으며, 남북 사이의 적대와 경쟁은 단순히 국가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 전반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했다.

남북 여성은 식민-전쟁-분단-탈식민이 중첩되는 굴곡진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한 존재들이다. 물론 남성들에게도 한반도의 상황이 힘겹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쟁과 분단 상황이 가부장제라는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에 억압에 노출되어 이중의 착취를 경험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을 비롯한 민간인이었으며,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남북의 여성 모두 구조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만큼 남과 북이 다른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억압의 구조는 그 밀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구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 시기에 남한의 여성은 소위 말해 '양공주'와 같은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엄청난 노동 강도를 저임금으로 감내하는 여공의 모습으로 대변된다. 비슷하게 북한도 여성은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동원되는 노동력이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존재로 호명되었다.

최근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은 OECD에

가입하는 등 엄청나게 빠른 경제적 발전을 이뤄냈지만, 젠더적 측면의 불평등은 그리 나아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성격차지수는 한국은 0.687로 153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가 경제적 기회, 교육, 건강, 정치적 영향력 등 네 분야에서 남녀 사이의 격차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여성 전반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독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제적 기회는 남성에 비해서 58.60%에 불과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은 남성과의 격차가 거의 없는 97.30%로 나타났고, 건강 또한 97.60%이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21.40%에 머물면서 남녀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젠더 이슈가 남한 여성에게 크게 작동하는 이유는 그만큼 일상에서 마주하는 남녀 사이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교육의 측면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혹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지만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기회의 차이가 나고 정치적 영향력에서는 미비할 정도로 재현되고 있다면 여성이 경험하는 좌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북의 여성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동일한 지표에서 북한의 성격차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성불평등 지수가 북한 여성의 상황을 설명해준다.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6%로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 재현은 남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기회에 관해서 북은 완전한 평등을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경공업이나 돌봄 노동 영역 등에 집중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

의 여성의 안전과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성사망율은 (출생인구 100,000명 당) 남한이 11명인데 반해 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성격차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건강과 같은 가장 기본적 수준의 환경이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남과 북의 여성들은 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만큼 한반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곳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른 경험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면면에는 식민-전쟁-분단이 중첩되어 작동하는 역사성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지속되는 '전쟁' 속 여성

전쟁은 모두에게 가혹하지만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한다. 한국전쟁에서의 여성의 피해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니 말이다. 남편과 아들을 전장에 내보내야 했던 고통뿐만 아니라 전시상황에서의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김귀옥의 연구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54년 사이에 약 300 여명의 한국군 위안부가 운영되었고, 군부대 내에 위안소가 존재하거나 군인을 따라 이동식으로 위안소가 운영되기도 했다는 것이다.¹⁾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시작으로 공론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일본군에 의한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모두 나서 분노하지만, 우리 스스로 전쟁을 위해서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

1)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 선인, 2020.

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름의 전쟁이 되었건,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누구였던 건 전쟁이 여성을 대상으로 어떠한 폭력을 자행하는지 확인되는 지점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국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인 정전체제가 지속되면서 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기지촌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들은 미군에 의한 구타, 살인 등에 노출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민족적 수치로 여겨지면서 한동안 논의의 장에 등장하지 못했다. 여성 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성과로 인해 2014년이 돼서야 미군 '위안부'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 폭력에 대한 싸움을 시작하기도 했다. 미군 '위안부'의 사례에서 더욱 끔찍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직접 나서 성병 관리와 통제 등을 담당했다는 점과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던 것, 이들을 달랠 수 없었던 애국자로 교육시키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캐서린 문에 의하면 미군이 주둔했던 다른 곳에서는 한국과 같은 광범위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 유독 한국에서 광범위한 성폭력이 이뤄진 이유는 일제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한국군 위안부 등으로 이어져 오는 전시 폭력이 전쟁이 멈춘 이후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²⁾ 즉, 식민과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은 지속되었으며, 이는 강간이나 물리적 폭력부터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성차별과 성폭력까지 확산되어 작동한다. 민주화 운동 시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도 그러하고 경제 발전이나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성차별적 구조가 유지되는 것도 결국 정전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쟁 등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국제 사회는 여성들이 전쟁이나 비평화적 사회에서 수많은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0년에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 결의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으로 1820호 결의안(2008), 1999호 결의안(2009), 1960호 결의안(2010), 2106호(2013), 2122호(2013), 2242호(2015), 2467호(2019), 2493호(2019) 등이 발표되기도 했다. 1325 결의안은 전쟁과 같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은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여성을 향한 폭력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평화 구축 및 재건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주류화를 이뤄내야 하며, 분쟁해결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이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에는 평화, 안보 의제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여성의 모든 사회, 경제적 권리를 향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전쟁 상황을 협소하게 정의하기 보다는 일상에서의 다양한 폭력적 상황에 대한 성주류화 관점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과 환경 및 기후 변화에서 여성의 역할, 참여, 보호 등이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고,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 해결 등을 주요 목

표로 설정하기도 한다. 평화와 안보 의제가 기존의 전통적 안보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보를 포함하는 비전통 안보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인 '정전체제'에서 남북 여성의 일상은 전쟁의 자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전쟁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가부장제와 결합된 독특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남북의 여성은 국가를 앞세운 가부장제와 남성들의 폭력과 억압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전체제의 비정상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과 분단으로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뒤틀려져 버렸는지를 감각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이나 보건 의료 영역에서 남한 여성들의 삶이 일정부분 개선되면서 남한 여성들의 삶을 제약하는 근본 조건인 군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약화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정치와 경제가 분단을 매개로 작동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회나 정치적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일상에서 작동하는 성폭력은 이제 사이버 세계로 확장되어 여성들이 경험하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삶이 힘겨워지기도 한다. 팬데믹, 기후위기, 환경 재앙 등의 경험에서 여성들의 삶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는 지점이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과거와 현재 한반도의 여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좀 더 성평등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

주지하듯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는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 구호와 재건(relief and recovery)를 강조하면서 외교, 국방, 개발협력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후에 1325호의 후속 조치로 제시된 결의안과 더불어 각 국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안보리 결의안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4년 제1기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국가행동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1기 국가행동계획(2014~2017)까지 지속되고,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이 수립되어 이행되었으며, 2021년 2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의 변화 발전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1기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보호, 참여, 구호와 재건 등 4가지 분야에서 총 10개의 목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 영역에서는 1. 분쟁 예방, 평화 활동 관련 종사자 인식제고, 2. 분쟁 예방, 평화 활동 및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3. 국제협력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며, 참여 영역에서는 4. 분쟁 예방, 평화활동에 여성 참여 확대, 5. 평화, 안보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 및 양성평등 도모, 6. 분쟁지역 및 분쟁 취약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후원, 보호 영역에서는 7. 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8. 여성, 아동, 청소년 중심의 정책 수립, 9. 분쟁지역 및 분쟁취약지역 성폭력 사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구호 및 회복 영역에서는 10. 개발 원조를 통한 분쟁지역 여성 피해자 보호 및 자활

2) 캐서린 문 외,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삼인, 2001.

지원 등이다. 유엔 결의안 1325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행동 계획으로 분쟁 예방 및 평화활동 등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과 여성참여 확대, 그리고 분쟁 지역의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행동 계획으로 평가 가능하다.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여성, 평화, 안보의 영역의 인식을 확대하고 민간 참여 및 이행 기반 강화를 반영하였다.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기존의 예방, 참여, 보호, 구호 및 회복과 더불어 이행점검 분야를 포함하여 5개 분야에 12개의 목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제1기 국가행동계획에서는 전쟁 예방이나 평화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주요 영역을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재난 및 위기 분야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점이고,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호 영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더불어 군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탈북여성과 난민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분쟁 지역이나 취약 지역의 여성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제3기 국가행동계획은 기존의 5개 분야에 11개 목표와 2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포함하여 분쟁예방, 평화, 통일, 국제개발협력 등에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것과 여성의 참여와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영주 외에 따르면 제3기 국가행동계획의 특징은 첫째 인간안보를 강조하면서 평화와 안보가 성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였고, 둘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고 군부대 인근 유흥음식점

종사 여성의 보호 등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 그동안 전쟁 폭력을 고발하고 여성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평화 노력을 역사화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위안부 기념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여성, 평화, 안보 관련 기록물 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안보와 평화의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뤄내야 함을 주장한다. 다섯째,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로컬화를 통해 각 지역 별로 상이한 여성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동하고자 하였다.³⁾

이렇듯 제1기 국가행동계획부터 제3기에 이르기까지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목표와 의제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국가행동계획의 한계도 분명해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행동계획이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행에 관련한 세부적인 이행체계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국가행동계획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민간 협력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행동계획에서 민간이 수행하는 역할이란 자문이나 용역 사업 정도에 머물러 있고, 이는 안보와 평화 의제가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1325 결의안의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 분명하지만 남한 여성들의 동의와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뼈아프다. 이는 평화, 안보 의제가 여전히 여성들의

인식과 삶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성들도 각자의 위치의 성평등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안보와 평화라는 역사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제도화가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일정부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아래로 부터의 평화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부재할 경우 평화, 안보 의제는 또다시 남성중심적인 프레임에서만 다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여성이 만드는 평화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여성, 안보, 평화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간안보적 접근을 통해 성평등과 성주류화가 안보와 평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계에서 안보와 평화가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성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직장, 가정, 일상에서의 성폭력 문제나 성평등 문제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전쟁과 안보라는 맥락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폭력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보와 평화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하는 점은 반성해야 할 지점이 분명하다. 이는 여성계 내부의 세대 간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쟁이나 안보 문제가 일상의 성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취급되어 왔던 것도 문제적이다. 성주류화를 통한 평화 구축이 지향하는 바는 일상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쟁과 안보 불안과 같은 정치적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까지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평화 역량 강화를 통해 인간 안보적 위협 상황을 타계하여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

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상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들 사이에는 다양한 경험이 존재하며, 이들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위치도 상이하다. 인종이나 민족 뿐 아니라 계급, 교육정도, 세대, 지역까지 다양한 차이들이 여성들의 경험과 의식의 차이를 생산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강조했던 것처럼 교차성에 주목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성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위치성의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존재로 공유되는 정체성과 경험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 체계를 연대를 통해 공유하고 서로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보와 평화의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 1325가 만들어지고, 각 국에서 국가행동계획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평화 영역에서의 성주류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한데 국방, 안보, 외교 분야에서 여성 참여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진행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기기 어려운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인류적 위기 상황이었던 팬데믹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젠더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안보 영역에서의 여성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며, 평화라는 상태가 국가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여성을 포함한 인간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


한반도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은 고단하다. 피

3) 조영주, 윤지소, 문희영, 김효경,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와 대한민국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 수립 연구』, 여성정책연구원(2020).

해자의 자리에서 고통받았지만, 평화 정착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전쟁으로 인한 폭력은 전쟁을 멈춘 정전체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남북 여성들의 삶을 여성주의적으로 되돌아 보면 전쟁과 안보가 누구에게 더 혹독했는지가 분명해 진다. 때로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때로는 가족의 안녕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남북의 여성은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이 결코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다시 접근해야 한다. 남북이 전혀 다른 정치 체제와 경제적 환경에 놓여 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 모두 가부장제를 전면에 내세워 성차별과 성폭력의 구조를 지속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전쟁과 분단을 여성주의적으로 다시 읽어냄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방안도 성인지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 논의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며, 여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일상에서 작동하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타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남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 근원적 뿌리에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한반도에서 다시금 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가장 피해를 받게 되는 이들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방문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전쟁 시기 국가폭력의 가장 참혹한 사례로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는 그곳에서 할머니들의 이름과 사진을 접할 수 있었다.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 할머니들 틈에서 한 할머니의 이름

을 확인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백넙데기'였다. 한 여성이 '넙데기'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온 것이다.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었던 시대에 할머니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란 것이 이렇게 보잘 것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백넙데기 할머니는 전라도의 소작농 집에서 6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고 한다. 민며느리로 시작한 결혼생활은 남편이 자신을 술집에 120원에 팔면서 끝나고 만다. 결국 중국으로 팔려간 그녀는 상하이 인근에서 위안부로 생활하였다. 군대를 쫓아 여러 곳을 옮겨다니다 손가락을 잃어버리는 폭력을 경험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자 중국인 남편에 의지하면서 중국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공민증을 얻지 못해서 평생 무국적자로 살다가 한국으로 2003년에 입국하였다. 그녀가 경험한 폭력을 어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중국의 깊은 산골에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던 그녀를 찾아내 그녀의 고통에 귀기울었다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잊힌 존재들을 찾아내 그녀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은 결국 폭력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남한의 근현대사 속 성차별과 성폭력의 피해자, 북한 체제의 성차별적 구조에서 착취당한 여성, 젠더화된 노동과 이주를 통해 한국으로 온 탈북 여성까지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야 할 이름들이다. 그녀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복원하여 한반도의 젠더화된 비평화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차별과 폭력의 구조 속에서도 그녀들이 만들어 낸 틈새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평화로운 미래의 단초를 만들어내야 한다. 

패널 1

우크라이나 YWCA 여성들의 전쟁 속 복구 활동

나탈리아 올리아네츠
우크라이나YWCA 회장

전쟁은 남성 못지않게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름답고 발전된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살던 여성이 하루아침에 집,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 익숙한 세상 그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대해 답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무력 충돌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에 매우 심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650만 명 이상의 사람들(그 중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내에서 실항민이 되었으며, 의료, 주택 및 고용 기회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난을 가지 않고 집을 지킨 많은 여성들은 직장을 잃었으며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사회적 결속, 공공 안전, 취약 계층의 회복력, 특히 여성의 삶은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공 자원, 사회 서비스 및 보육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실항민 여성은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 가족을 돌보는 부담을 떠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직업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은 의회 의석의 12%, 내각의 11%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전쟁으로 흩어진 가족, 가족과 떨어진 어린이, 전쟁으로 인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난 어린이와 연로한 친척을 보살피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성과 소녀들이 우려하는 7가지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박한 안전의 위협
- 필수품 부족
- 생계수단 상실
- 전쟁과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 공공 및 사적 장소에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 커뮤니케이션 부족, 정보 및 사회 서비스의 부족
- 여성이 모든 수준의 계획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공공 단체로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4개월. 그것이 저와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모든 여성들은 전쟁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피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위험지역에서 도망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체르노빌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은 충격, 두려움, 혼란, 미래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히스테리를 경험하고 여전히 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여성과 소녀들은 마음에 증오를 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살아있기도, 숨을 쉬기도 힘이 듭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증오로는 증오에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제 자신에 대해 배운 것은 무엇 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 자신에 대해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이 너무 무서웠고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고 제 자신에게서 몇 가지 특별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격이 있었을 때 저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히스테리와 증오에 빠지지 않았

고 단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저는 전쟁 중에도 삶은 계속되고 여전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작은 기쁨을 가져다주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전능하신 분과 내면의 힘을 믿으십시오.

120일의 전쟁에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살아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 악몽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집과 직장, 생계 모두 잃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 동안, 전 세계에 멋진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친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탄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들이 저를 더 사려 깊고 세심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2014년에 돈바스(Donbass)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주 잘 이해합니다. 그곳의 모든 것들이 재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가슴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 유고슬라비아나 시리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에는 그 일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보았고 이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은 나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지구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대개 침묵을 택하고, 우리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여성과 아이들이 이 지구 어딘가에서 살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끔 세상이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건이 전능하신 분의 뜻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고 이해합니다. 그 뜻은 결국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며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YWCA와 공동으로 코칭을 시작

했습니다. 우리 훈련가들은 재활을 돕는 여성들과 함께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렵고 긴 작업입니다.

여성과 관련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 중의 우울증과 극복방안
(근경에 처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2. 신경쇠약
(불안, 두려움, 절망감이 쌓이고 어느 순간 이를 돌파하면 짜증이나 공황발작이 일어날 수 있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3. 전쟁 중 사랑하는 사람, 재산, 일의 상실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약하고 혼란스러울 때 대처하는 방법) 

이스라엘 통치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평화 활동

아말 타라치

팔레스타인YWCA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YWCA

팔레스타인YWCA연합회는 1893년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하여 1918년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등록된 비정부단체로서, 지역YWCA로는 예루살렘, 라말라, 예리고, 베들레헴 YWCA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청소년이 인권 및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팔레스타인 시민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00여 개국의 회원국 YWCA들을 통해 여성, 젊은 여성, 소녀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글로벌 운동체인 세계YWCA에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YWCA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특별 협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YWCA의 역사는 곧 팔레스타인의 역사 자체와 연결됩니다. 1948년 나크베(Nakbeh, 아랍어로 재앙;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의미) 이후 난민 수용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최초의 전국 협회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1차 및 2차 인티파다(Intifadas;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지역에서의 팔레스타인에 의한 반란) 기간 및 아파르트헤이트 장

벽 건설과 그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분리 및 해체 이후 이동의 자유가 계속 제한되고 있는 등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YWCA는 1948년 나크베(Nakbeh) 기간 동안 이스라엘 갭단에 의해 도시나 마을에서 인종 청소를 당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과 자기 결정권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YWCA와 기부자, 전 세계 팔레스타인 인권 지지자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팔레스타인YWCA 비전

여성과 청년, 특히 젊은 여성들이 평등, 자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팔레스타인 시민 사회 건설을 위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합니다.

미션

YWCA는 여성과 청소년, 특히 젊은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리더십,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여성의 리더십과 주도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사회 참여와 양성평등을 지향하며 평등, 자유, 관용, 정의, 평화

및 인간 존엄이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변화이론

YWCA의 변화 이론은 우리 젊은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기회와 필요한 지원만 있다면 자유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문화, 교육, 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자신의 개인 및 국가적 권리를 더 많이 인식하고 수호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다양한 수준에서 평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이론은 YWCA가 경험과 지식의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여성과 젊은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화 이론은 YWCA의 핵심이 되는 역사적 경로를 상징하는 4가지의 주요 성과를 상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위 목표와 목표, 그리고 개입과정에 대한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의 점진적인 개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목표

목표 1: 여성과 젊은 여성이 경제적 기회와 적절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 임파워먼트”

이 목표는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기업 활동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성과 젊은 여성들을 임파워링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원격 근무 및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기업 활동 및 마이크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향후의 지원 계획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표 2: 사회 혁신을 통한 팔레스타인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

역사적으로 YWCA-팔레스타인은 젊은 여성과 남성이 발전하고 배우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YWCA는 또한 변화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 지역 의회, 기관에서 의사 결정 과정과 대표성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팔레스타인 청소년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계획의 목표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 이슈들을 실현하는 6개의 풀뿌리단체들(STRATEGIC PLAN 2022-2026)과의 파트너십 및 다양한 영역(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확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기업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의 전략이 사회 개발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면 이제는 청소년, 여성 및 어린이와 관련된 사회 혁신으로 우리의 목표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목표 3: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이전 계획에서 이 목표는 정의와 함께 하는 평화의 한 요소로 언급되었으며, 이는 여성과 청년, 특히 젊은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인권에서의 원칙과 팔레스타인에서의 정의로운 평화 실현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2250호와 같은 국제 협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1억 명으로 회원을 증가하도록 하는 YWCA의 글로벌 운동 목표의 일부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전략 계획은 국제적인 조약을 실행하고 법률과 절차 개정을 위한 로비와 주창활동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국가의 구속력 있는 협정은 물론이고 국제적,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회원YWCA의 지역차원에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4: YWCA의 역사적 유산과 행정적, 재정적 지속 가능성 보존

이 목표는 기부자와의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고 수입원(운영, 재산, 투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및 행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긴밀한 관리 및 프로그래밍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목표는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젊은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젊은 여성의 적극적인 회원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정책, 절차, 거버넌스, 재정 및 행정 계획과 관련하여 YWCA 행정과 재정 및 운영 구조의 개발에 주력합니다. 전략계획의 실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활성화에도 주력합니다.

국가 개발 의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 개발 의제의 틀 내에서 사회 정의는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빈곤 감소, 빈곤 및 소외 계층을 위한 적절하고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을 제공하며, 성평등, 여성의 임파워먼트 및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과 모두가 접근 가능한 종합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환경 보장, 법치주의 강화, 기초적인 생활필요 충

족, 농업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팔레스타인 정체성과 문화전통 보호 등을 통해 모든 팔레스타인인의 회복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여성평화운동가와 코비드 19

UNSCR 1325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YWCA의 여성들이 COVID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중동에 위치한 작은 아랍 국가로 1948년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는 1967년부터 이스라엘군 점령 하에 있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일상 생활과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은 팔레스타인 경제에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현재 29.9%인 빈곤율은 장기간의 락다운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인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널 III

일본 여성들의 평화와 헌법 수호 활동

히구치 사야카
일본YWCA 부회장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전 세계YWCA 자매들과 함께하는 이번 평화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YWCA의 부회장이며, ‘평화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Peace and Nuclear-Free World)’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히구치 사야카입니다.

먼저 일본YWCA의 모든 회원들을 대표하여 한국YWCA의 창립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성과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국YWCA의 그간 활동과 업적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YWCA의 열정은 우리 일본YWCA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한국YWCA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활동을 공유할 수 있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YWCA는 1905년에 설립되었고 일본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24개 회원YWCA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YWCA의 활동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전 이후부터 평화운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본

YWCA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그 중심에 두고 있으며 우리 활동의 주제 및 비전에 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20세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일본YWCA는 일본의 군사적인 침략을 저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군국주의와 식민주의 정책에 동참하며, 세계YWCA와의 소통을 중단하고 세계적 운동체로서의 본질을 저버렸습니다. 또한 식민지정책에 따라 한국YWCA를 일본YWCA로 편입시키고 상하이에도 일본 여성을 위한 YWCA를 설립하였습니다.

군국주의에 동조한 일본YWCA의 이러한 행위는 식민지여성의 삶에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역사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이를 위해 평화운동에 정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으로 2009년에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한 사과와 세계평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본 헌법과 관련된 일본 내의 상황과 평화주의 및 비군사주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일

본YWCA의 활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본 헌법은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이후인 1947년 5월 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일본 제국은 끝나고 일본은 새로운 국가로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일본 헌법은 평화주의,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이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운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헌법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략] 또다시 정부의 행위로 인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고히 수립한다.”

“우리 일본 국민은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기로 결의한다.”

(전문)

헌법 9조는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도전은 현 일본 정부가 이 헌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권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개헌을 당의 공

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서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길을 닦는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2012년 '개헌안'에서 앞서 인용한 일본헌법의 '항구적 평화'에 관한 전문 구절을 삭제하였으며, 무엇보다 전쟁 및 군복무 포기에 관한 9조를 대폭 개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헌 경향은 지난 10년 간 일본 사회가 우경화됨에 따라 급격히 강해졌습니다.


일본YWCA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1962년부터 40년 동안 매년 전국적으로 '일본 헌법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1962년부터 일본 전역의 여러 회원 YWCA에서 '평화의 요새'라는 낭독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원YWCA들은 스터디 그룹, 헌법과 평화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는 '헌법 카페', 주창활동을 위한 캠페인,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정보 도구 제작, 헌법 9조를 상징하는 9자 모양의 쿠키와 수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본YWCA의 '평화와 핵 없는 세계 위원회(The Committee on Peace and Nuclear-Free World)'는 최근 헌법에 명시된 주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온라인 인포그래픽 툴을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개헌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본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일본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그들은 일본이 침략당할 경우에 군대 없이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이 일본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법 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일본이 이른바 다른 국가와의 '핵 공유'를 통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YWCA는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일본의 여

성 운동체로서 일본의 개헌을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의 YWCA 네트워크, 특히 아시아 국가의 자매 YWCA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대를 요청하며, 다시 한 번 피스메이커로서 매일매일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매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반도 여성들의 평화 활동과 전망

이숙진

전 한국YWCA연합회 Y아카데미 위원
이화여대 강사

신냉전 체제의 도래와 여성

마치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듯,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는 긴장과 무력 충돌이 점증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신냉전 기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사이버 나토)에 가입한 최근 한국에서는 국가 정상의 나토 회의 참석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가 신냉전 시스템의 구축을 원하는가.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분명한 것은 긴장과 무력충돌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냉전체제에서 이미 경험한 바이지만, 긴장 상황은 군사적 수단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인간 안보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 가부장적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세계 진행 방향의 '불확실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요컨대 현

재 상태는 신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수도 있고, 평화의 훈풍이 새로운 미래 사회를 열 수도 있는 기로에 있다. 한반도가 강대국 간의 긴장과 갈등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기 위해, 또 국내적으로는 인간안보를 최우선으로 생활공간에 적용하기 위하여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대해진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분단의 잔혹함을 증언한 여성 주체

군부/신군부가 장악한 1960-80년대는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반공법이 최상위 법으로 군림했다. 서슬 퍼런 연좌제로 인해 가족 중 누구든 '빨갱이' 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 제대로 숨 쉴 수조차 없었던 시절이었다. 반공의 투사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빨갱이' 전력으로 인해 애도가 불가능했던 오빠의 존재를 고백함으로써 분단 이데올로기의 잔인함을 폭로한 이는 '여성' 작가 박완서다.

"그래, 우리 집안은 빨갱이다.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도 빨갱이로 몰려 사형까지 당했다. 국민들을 인민군 치하에다 팽개쳐두고 즈네들만 도망갔다가 가지고 인민군 밥해준 것도 죄라고 사형시키는 이판 나라에서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죽여라, 죽

여...."(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마치 반역 혐의자인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매장하여 국법을 어긴 안티고네처럼, 그녀가 한반도의 안티고네가 된 것은 '빨갱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함께 피난의 기회를 놓쳤던 것이 계기였다.

"지대가 높아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혁명가들을 해방시키고 숙부를 사형시킨 형무소도 곧장 바라다보였다. 천지에 인기척이라곤 없었다. 마치 차고 푸른 비수가 등골을 살짝 긁는 것처럼 소름이 짝 끼쳤다. 그건 천지에 사람 없음에 대한 공포감이었고 세상에 나서 처음 느껴 보는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다. 독립문까지 뻗어 보이는 한길에도 골목길에도 집집마다에도 아무도 없었다. 연기가 오르는 집이 어찌면 한 집도 없단 말인가... 이 큰 도시에 우리만 남아 있다. 이 거대한 공허를 보는 것도 나 혼자뿐이고 앞으로 닥칠 미지의 사태를 보는 것도 우리뿐이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 그때 문득 막다른 골목까지 쫓긴 도망자가 희 돌아서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왔다. 나만 보았다는 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다. 우리만 여기 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약한 우연이 엮이고 덮혔던가.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허뿐이라. 벌레의 시간도 증언해야지. 그래야 난 벌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건 앞으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 예감이 공포를 몰아냈다..."(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를 비롯한 전쟁을 통과해온 한반도의 여성들은 한국전쟁 정전 70여 년 동안 "사람 나고 이

데올로기가 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나고 사람 난 세상의 끄찍"함을 증언하는 주체가 되었다.

평화운동의 허브, 한국YWCA

1980년대 무력에 기반한 신군부와 운동권의 대항 폭력이 난무하던 가운데, 한국YWCA 평화운동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982년 전국 정오기도회 '사랑과 평화의 일꾼으로 삼으소서'를 시발점으로 하여, 분단 이전의 북한 지역 YWCA 재건 계획(1986) 아래 북한바로알기 운동, 탈북민 교육과 직업훈련, 영유아 평화통일 교재 발간, 전국 어린이 집 평화교육, 청소년 평화캠프 등 미래의 평화 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매진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은(1996년 시작) 북한 어린이도 우리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 어린이와 함께'를 통해 분유와 면 마스크를 지원하였다. 대북 제재로 인해 이러한 활동은 부침이 있었지만, 북한의 취약계층,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마음의 통일을 확장하려는 방향성은 견지하고 있다.

존 레더라크는 "갈등 집단이 근접해있고 갈등의 구성원이 공통적인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갈등이 오래 쌓이면서 서로에 대해 매우 다른 인식을 가지는 심각한 고정관념이 생긴 경우, 갈등의 쟁점을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외교 활동만으로는 평화 구축에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한다.¹⁾ 요컨대,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화해가 평화 구축의 중심 요소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갈등 집단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국YWCA는 부단히 계획, 실행하고 있

1) 존 폴 레더라크,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휴머니티스, 2012.

다.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프로그램은 2017-2022 동안 해마다 평화 순례자들이 백두대간에 올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의 길을 만들기를 다짐해 왔다. 이 밖에도 남한민과 탈북민 사이에 상호 이해를 높이고 평화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인 '길 위의 평화포럼', 국제여성 평화포럼 등을 진행해왔다. 'WCD(Women Cross DMZ) 국제여성평화걷기' (2015)를 통해 한국YWCA는 여성들의 평화 운동의 저력을 확인하였다. 화합과 평화의 상징인 1,000개의 천 조각으로 엮어진 조각보를 52개 지역의 수백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완성해냈으며, 국내외 여성들과 손잡고 DMZ 걷기를 통해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를 촉구했다. 2019년 국내외 여성단체들이 협력하여 시작한 'Korea Peace Now' 캠페인(2019)에서 미 의회 방문과 UN을 대상으로 시민 공공외교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380개 단체들과 함께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https://endthekoreanwar.net>)(2020)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YWCA는 피스챌린지(Peace Challenge), 피스먼데이 거리캠페인, 회원Y 교육 등을 계획 추진하였다. 요하네스버그 세계YWCA총회(2019)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서명 및 북한 여성 지원에 관한 호소' 결의문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어 109개국 YWCA들의 지원과 연대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YWCA의 평화운동은 탈핵운동에서 발군의 저력을 보였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에 탈핵을 중점운동으로 채택(2014), 2018년까지 약 5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정오 시간을 이용해 명동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탈핵의 필요성을 알렸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4번째 화요일 연합회 회관 앞에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성 평화운동의 나아갈 길

1991 '그린햄커먼(Greenham Common)'기지의 핵철수는 1981년부터 여성들의 부단한 평화운동의 결실이다. 38명의 여성에 의한 운동의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그 시작이 없었더라면 이후 3만 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2차 시위도 불가능했으며, 유럽과 미국 여성의 연대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린햄커먼(Greenham Common)'기지의 핵철수와 기지 폐쇄를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의 부산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이들은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국방비 지출국이자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한국이 마치 평화는 강대국에 달려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든가,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소모적이라고 평가해왔다.

하지만 여성의 평화운동 군사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앞서 말했지만 오늘날 여러 가지 정황은 신냉전 체제가 본격화되는 듯 보이거나 한국 여성의 평화운동이 그 방향을 돌릴 수 있다. 정오의 기도회로 시작한 YWCA의 평화운동은 미미하였지만, 지난 수년 동안 평화운동의 이름 아래 모인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전체주의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평화 지킴이가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군사 전문가와 관료들에게 한반도 평화 정책을 요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정책자료의 공개를 요청하고, 자료를 함께 공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정책에 대해선 폐기 압력을 가하고, 젠더 정의의 관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입안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길 위의 평화포럼', 탈핵운동 등을 한반도에 인간안보가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추진하여 평화의 행위 주체로서 책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YWCA KOREA's 100th Anniversary YWCA Women Peace Forum

- Date/Time: 6th July (Wed.) 14:00-17:00 (KST)
- Place: Zoom Webinar
- Purpose: To build a discourse for the peace solidarity of women in the world on issues that threat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solidarity and joint action.
- Program

Moderator : EunYoung Lee (Vice President, YWCA Korea)	
14:00-14:20	Opening Remarks : YoungHee Won (President, YWCA Korea)
Keynote Speech <Peace Made by Women, How is it Sustainable?>	
14:20-14:50	SungKyung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14:50-15:20	Q&A
Panel Presentation	
15:20-16:10	Restorative Movement of Ukrainian Women in War : Nataliya Ulianets (President, YWCA of Ukraine)
	YWCA Palestine's Peace activities under Israeli rule : Amal Tarazi (National General Secretary, YWCA Palestine)
	Work for Peace and Protection of Japanese Constitution : Sayaka Higuchi (Vice President, YWCA of Japan)
16:10-16:50	Peace Activities of Wome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ospect : SookJin Lee (Former Y-Academy committee member, YWCA Korea)
	Questions and Discussion
	Closing

Blessed are the Peacemakers

YoungHee Won (President, YWCA Korea)

I would like to welcome and give thanks to everybody who has joined us today to celebrate the start of the 2022 YWCA International Women's Peace Forum. This forum marks the beginning of the YWCA Pilgrimage and Forum for Woman's Peace; one of the YWCA Korea's many centennial anniversary projects.


The YWCA Women's Peace Pilgrimage first began in 2017 at Mount Halla during the 95th anniversary of the YWCA of Korea. From there, we travelled to Mount Jiri in 2018 and Mount Taebaek in 2019.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and 2021, we continued our pilgrimage by hosting "Socially Distanced Individual Peace Pilgrimage" travels. The pilgrimage initially began as a group of 95 participants, but gradually grew to a group of 585 participants over the past six years as we added participants annually, commensurate to the anniversary year of the YWCA. The pilgrimage group reaches around a thousand pilgrimage participants when counting unofficial, individual participants, which included various Korean diaspora worldwide. All participants gathered in prayer to share our hope and aspiration for peace, and confirm our resolve for combined action.

This year 2022 was shook with conflict and war across the globe delivering shock and distress to all that were expecting a return to normal and recovery from the impact of the two year long pandemic. War brings death and chaos and breeds hatred and conflict. Conflict pushes the vulnerable into further vulnerability and incites exploitation and agony for women and children. Over the past seven decades,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mired in repeated tragedies of conflict, hostility, hatred, and confrontation due to an ongoing, never ending war and division. In the midst of this war and tragedy, however, we have learned that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peace that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Korean Peninsula is our power and hope.

The theme of today's forum is "Peace Made by Women: How is it Sustainable?" We are joined today with YWCA members from Ukraine, Palestine, Japan, and Korea; all of whom who have relevant experiences of, or are currently suffering from war and conflict. These members have overcome the role of victims in conflict and are advocating peace by voicing their determination for justice and change. We hope this gathering today will become a cornerstone for support and cooperation for all activities carried out through our combined action.

The Holy Bible says, "Blessed are the peacemakers." There are many that say they love and long for peace, but there are few that actually work to make peace a reality. Peacemaking leads to justice building and it is carrying out God's will of love and salvation. May God comfort and bless all people including our YWCA sisters, who are striving in the most vulnerable and painful places as peacemakers.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100 pilgrimage participants from the YWCA of Korea gathered here, as well as the members of the YWCA of Korea and other YWCAs across the world, and all other participants, joining in with us online. Although we cannot meet many of you face to face, I can still feel our communion of warm support and sisterly love. It is my earnest prayer that our actions of peace will contribute to reconciliation and justice around the world.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ose who worked day and night to put this forum together and for their passion and cooperation. I hope that all of our prayers for peace translate into action and become a reality in our lives in God's Love.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as we work towards peace on Earth. Thank you. 

Peace Made by Women, How Is It Sustainable?

SungKyung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YWCA Peace and reunification Advisory group

Living as a woman on the Korean Peninsula

Let us begin with a question. What does it mean to liv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woman? Unable to overcome colonization by its own power, South and North Korea were divided and ruled by the two pillars of the Cold War, and soon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Korean War, which began as a civil war, turned into an international war, and only after countless lives were lost did the warring parties agree to a temporary halt to the war. With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th, 1953, an ‘armistice system’ was established. When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there were also expectations that an end of the war and peace would soon be institutionalized. However, as the Cold War on the international level began 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rmistice system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ontinued for 70 years. Even after a Post-Cold War World emerged,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d. Now the division and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re solidifying with the recent arrival of a new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called the New Cold War.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lived by defining each other as ‘enemies’ for such a long time, and the hostility and competition between the two Koreas grew enough to distort the people, not just at the national level, but their identity and life as a whole.

The women of the two Koreas are beings who have experienced a crooked history of overlapping colonization, war, division, and decolonization. Of cours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difficult for men, but in the case of women, they have been exposed to oppression by the male-centered social structure of patriarchy through the war and division. The biggest victims of the war were women and other civilians, and in the process of post-war restoration, women in neither of the two Koreas could be free from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violence. It seems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established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economic structures, but from a woman's point of view, the structure of oppression is only different in regard to density and is not particularly distinguished in terms of its fundamental structure. For example, during post-war resto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n women were generally represented in the form of sex

workers known as the so-called, ‘Yang Gong-ju (western princess),’ for the purpose of serving U.S. soldiers, or as female factory workers who had to endure an enormous amount of intensive labor at low wages. Similarly, in North Korea, women were considered a labor force to be mobilized whenever the state needed them, and they were called to be in charge of the family's economy in the case of a national crisis.

The same is true of our recent situation. South Korea has achieved tremendous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joining the OECD, but gender inequality has not seen much improvement.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World Economic Forum's GGI (Gender Gap Index), Korea ranked 102nd out of 153 countries with a 0.687 rating. The index measures the gap between men and women in four areas: economic opportunity, education, health and political influence, so it should not be mistaken for a woman's overall life, but economic opportunities for women were only 58.60 percent of what men receive in comparison. Fortunately, women's education was found to be 97.30%, keeping pace with men, and health was also 97.60%, but political influence has remained at 21.40%, indicating a major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The reason why the gender issue has recently had such a significant operational impact on South Korean women is that they are experiencing the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whom they face in their daily lives. Even if women have equal or greater opportunities than men in terms of education, when there is a difference in economic opportunities like jobs, and when social reproduction is distributed to a lesser extent in political influence, then the frustration experienced by women is bound to be even greater.

The situation for women in North Korea is even worse.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gender gap in North Korea with the same index, but the gender inequality index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an give us a picture of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women. As of 2019, the proportion of female lawmakers in North Korea was 17.6%, thus the social reproduction of women in the political field was confirmed to be lower than in South Korea. Regarding economic opportunities, the North emphasizes that it is achieving complete equality, but jobs provided to women are concentrated in light industry and caring labor areas. The larger problem is that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women at the most basic level has not been achieved. For example, the maternal mortality rate reached 89 (per 100,000 births) in North Korea compared to 11 in South Korea. In term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North Korea is known to have a fairly low character difference, but in the most basic circumstances such as women's health it is incomparably inferior to South Korea. Why on earth are women in the South and the North living in these circumstances? As such, living as a woman on the Korean Peninsula means a different system of experience than that of living as a man here, and each of those sides are deeply entrenched in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overlapping colonization-war-division.

Women in the Midst of Perpetual War

War is harsh on everyone, but it especially destroys women's lives. The damage to women in the Korean War is immeasurable. Not only were women exposed to the pain of having to send their husbands and sons to the bat-

tlefield, but also sexual violence in wartime as well. According to Kim, Kwi-ok's study, about 300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were operating between 1951 and 1954, and 'comfort stations' existed in military camps or operated as mobile 'comfort stations' following soldiers's movements.¹⁾ Starting with the public testimony of grandmother Kim Hak-soon in 1991,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public; however, the existence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has still not been fully discussed. Although Korean society up in anger about wartime sexual violence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it would not have been easy to admit that we ran wartime 'comfort stations' of our own. No matter whose name in which war is fought, no matter who is the main agent, the most important point is what kind of violence the war has committed against women.

That is not all. As the armistice system continues, since it has only temporarily suspended in the Korean War, the problem of the 'comfort women' for the U.S. military has also arisen. The so-called 'gijichon women' were exposed to beatings and murders by the U.S. military, but they failed to appear in this debate for a while as they were considered a national shame in Korean society. Due to the persistent efforts of women's groups and the achievements of the 'Comfort Women' movement, it was finally in 2014 that the U.S. 'Comfort Women' began fighting against the state and against state violence. What is even more terrible in the case of the U.S. military 'comfort women'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ok charge of managing and controlling STDs, encouraged sex trafficking for the U.S. military, and even educated the women to think of themselves as 'patriots earning dollars.' According to Catherine Moon, who has been studying the U.S.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re has been no widespread sexual violence elsewhere where the U.S. military was stationed like there has been in South Korea. Analysts say that the reason there is widespread sexual violence in Korea is because the state-sponsored prostitution carried down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uch a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etc. was not properly punished even after the war stopped.²⁾ In other words, violence against women continued on the Korean Peninsula, having failed to overcome colonization and division, and this spreads from rape or physical violence to continuous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violence in daily lif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continued dur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under the pretex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was maintained because of the ongoing abnormal state of the armistice system.

This situation is not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Efforts have been made to solve the violence experienced by women in situations such as war.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ointed out that women are

1) Kim, Kwi-ok, In that Place there Were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Colonization and war, the Cooperation of the Patriarchy, Sun-in, 2020.

2) Moon, Katharine H.S.,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Sam-in, 2001

exposed to numerous types of violence in war or non-peaceful societie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sued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n 2000, followed by subsequent resolutions: 1820 (2008), 1999 (2009), 1960 (2010), 2106 (2013), 2122 (2013), 2242 (2015), 2467 (2019), and 2493 (2019). Resolution 1325 points out that women's human rights are bound to be greatly violated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such as war, and violence against women tends to continue there even after the war ends.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is emphasized that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peacebuilding and reconstruction, gender must be mainstreamed, and that women should participate in all decision-making levels in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In addition, experts have recently emphasized the expans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and security agenda, and have recommended that all social and economic rights of women be improv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mphasizes the introduction of a gender mainstreaming perspective on various situations of violence in daily life rather than narrowly defining violence as situations of war. While a response to violent extremism and the role,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of women in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are emerging as major agendas for this community, they have also set one of their main goals to be solving the poverty experienced by women. This is because the peace and security agenda is not remaining confined to the existing traditional security domain, but is spreading to the realm of non-traditional security, including human security.

So what i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mentioned earlier, the daily lives of women in the two Koreas still remain in the wake of war in this 'armistice system,' where the war has only been temporarily suspended. In order to maintain the abnormal state of war, the state established a unique system that fused with the patriarchy, and women in the two Koreas are living a life that cannot break free from the patriarchal system that places the state at the forefront or from the violent and oppressive structure of men. Nevertheless, as the abnormalities of the armistice system continue for a long time, the critical view of the fundamental problems it creates is gradually weakening. This is because they have no sense of how twisted women's lives have been due to the war and division. One example is the gradual weakening of the problem of militarism, a fundamental condition that constrains the lives of South Korean women, as the lives of South Korean women improve to some extent with education and health care. Most of them take it for granted that women's economic opportuniti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re limited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politics and the economy operate as a medium of division. In addition, sexual violence operating in everyday life has now expanded to the cyber world, making life difficult due to the fear and lack of safety experienced by women. It i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women's lives are becoming more at risk in situations such as the pandemic,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disaster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check what kind of lives women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lived in the past and are living in the present, and efforts should be based on this bring about gender equality i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 Peace Made by Women

As is well know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consists of four key areas. Emphasizing prevention, protection, participation, and relief and recovery, it proposes the gender mainstreaming of foreign, defens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s a whole. In addition to the resolution presented as a follow-up to No. 1325, each country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realize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by establishing a national action plan. In the case of Korea, the first national action plan was established in 2014, and in 2017,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was revise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for the national action plan. The first national action plan continued from 2014 to 2017, then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2018-2020)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nd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was finalized by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in February 2021. If so, it is necessary to briefly look at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Korea's national action plan here.

First of all, the first national action plan consists of a total of 10 goals and detailed tasks in four areas: prevention, protection, participation, relief and reconstruction. In the area of prevention, it supports, 1. Raising awareness of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 activities as it relates to workers; 2. Integration of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into conflict prevention, peace activities and policies; 3. Establishing a prevention system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the area of participation; 4. Prevention of conflict, expans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activities; 5. Equal participation of men and wome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field of peace and security and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6.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the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in regions of conflict and regions vulnerable to conflict; and in the area of protection, 7.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midst of conflict; 8. Establishing policies centered on women, children, and youth; 9. Support for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regions of conflict and regions vulnerable to conflict; and in the area of relief and recovery, in includes, 10. Protecting female victims in conflict areas and supporting self-support through development assistance. As the first ac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U.N. Resolution 1325, it can be evaluated as an action plan that reflects gender perspectives such as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 activities, expands women's participation, and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women in conflict areas.

The 2nd National Action Plan expanded awareness of the areas of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reflected a strengthening of the foundation for civilian participation and implementation. The 2nd national action plan consists of 12 objectives and detailed tasks in five areas, including the area of performance inspections, along with prevention, participation, protection, relief and recovery. What's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the 1st national action plan expanded key areas that had been limited to war prevention or peace activities to include the areas of national defense, security, peace, unification, disaster and crisis, and it emphasized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area of protection, the government is calling for an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victims of military-related sexual violence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along with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system. It also emphasizes supporting women in regions of conflict or re-

gions vulnerable to conflict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strengthening their capacity.

The 3rd national action plan consists of 11 goals and 24 detailed tasks in the existing 5 fields. The main goal is to apply the gender perspective to conflict prevention, peace, unific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ccording to Cho Young-joo, the 3rd national action plan emphasizes human security and emphasizes that peace and security are directly related to gender equality. Second, it emphasizes the expans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tively reflects the reality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Third, it contains attempts to report war violence from that time and to historicize various peace efforts that women have attempted. It proposes expanding 'Comfort Women' commemorative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rchives of records related to women, peace, and security. Fourth, it emphasizes the role of women in the area of security and peace, and argues that this should be achieved through strengthening women's capacity. Fifth, through the localization of agendas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different women's experiences for each region were shared and women's active participation was promoted.³⁾

As such, various goals and agendas have been proposed for the realiz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from the period of the first national action plan until the third.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action plan seem clear, and the most representative issue is that they never made a separate budge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In addition, although the national action plan is included in the Basic Act on Gender Equality, a detailed implementation system related to implementation is not specified. Although the national action plan emphasizes cooperative governance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fact that practical private cooperation could not be achieved is a problem. The role played by the private sector in the state-led action plan remains at the level of advisory roles or service projects, which also leads toward a state-centered operation of the security and peace agenda.

Above all, it is clear that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1325 resolution has been established, but it is also painful that the consent and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women have not been achieved. This is because the peace and security agenda has still not been fully discussed within women's perceptions and lives, and even though women are actively responding to gender equality 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re is still indifference to the historical agenda of security and peace. Although institutionalization can play a part in settling peace, if

3) Cho, Young-ju, Ji-soo Yoon, Hee-young Moon, Hyo-kyung Kim,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and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2020).

there is no discussion or practice of peace from below, the peace and security agenda is likely to be dealt with only within a male-centered frame again.

So what kind of effort should we make? What are measure women can take to make peace sustainabl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security, and peace, and to recognize that gender equality and gender mainstreaming are directly related to security and peace through a human security approach. Also, through introspection we should address the fact that security and peace have been inadequately discussed in the women's community recently. Women are actively responding to sexual violence or gender equality issues at work, home, and in daily life, but inequality and general violence, which have been justified in the context of war and security, have not been fully addressed.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indifference to security and peace,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This is partly because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within the women's community has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and it is also problematic that war and security issues have been treated as problems on a different level to that of daily sexual violence. The goal of building peace through gender mainstreaming should not only involve peace in everyday life but also attempts to peacefully resolve political situations such as war and the instability of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it will be important to build a foundation for overcoming threats to human security by strengthening women's peace capacity.

Secondl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women's solidarity and cooperation system. Experiences among women are diverse to the extent that women cannot be considered as one same group, as even the socioeconomic location where they are located can be different. Various differences, not only in race and ethnicity, but also in class, education, generation, and region, produce differences in women's experiences and consciousness. This is why an approach that focuses on intersectionality is needed, as liberal feminism has emphasized. While considering the various contexts of location that each woman faces,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dentity and experience shared by women's being. It is necessary for women to share their various systems of experience through solidarity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o overcome each other's situations.


Finally, the feminist perspectiv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e domain of security and peace. Despite the cre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and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action plans in each country, gender mainstreaming in the domain of security and peace is progressing slowly. The situation in Korea is particularly serious, with female participation in policies of defense, national security and diplomacy increasingly falling, which foreshadows the difficulty of women's voices in the futur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deepening inequality experienced by women in the pandemic, which has become a crisis for humanity, there is no social discussion on gender inequality among women. To overcome this situation, feminist intervention in the security realm is necessary, an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peace is not merely a status at the state-level, but a status of life that involves safety and fairness for all humans, including women.

The Voices of the Nameless

The lives of women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are tough. Although women suffered from the position of the victim, they could not speak out as a party for a peace settlement. The violence caused by the war continues even amid the ceasefire system that paused the war. Looking back on the lives of women in the two Korea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t becomes clear who received the bulk of the harshness of war and security. Sometimes under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sometimes under the pretext of national development, and sometimes under the ideology of family well-being, women in the two Koreas have lived a difficult life. So, what should we do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ars and divi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never operated the same for everyone. The history of war and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pproached again with a feminist perspective. The two Koreas may have a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environment, yet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both Korea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have maintained a structure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violence by placing patriarchy at the forefront. By reading the war and division again as a feminist, a plan to overcome it can also be derived with a sensitivity to gender. To this end, it is also necessary for women to actively participate in peace discussions, and it is important to break down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violence that affects everyday life for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women. In particular, it seem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militarism and patriarchy are operating at the root of the threat to the safety of South Korean women. It is also necessary to share a consciousness of crisis in that those who will be most affected in the event of another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women.

Lastly,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that I recently visited. The names and photos of the grandmothers were available there, where the data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known as the most harrowing case of state violence during a war, was well organized. I checked for one grandmother's name among the well-known human rights activist grandmothers, and she was called, 'Baeknupdegi'. A woman has lived her whole life under the name of 'Nupdegi.' In an era when the idea of male-domination over women was deep-rooted, the idea that the name given to grandmothers could be so insignificant passed through my mind. It is said that Grandmother Baeknupdegi was born as the second daughter of six siblings in a tenant farmer's house in Jeolla-do. Her marriage, which began as a daughter-in-law in her husband's house, ends when her husband sells her to an alcohol bar for 120 won. Eventually she is sold to China, and there she lived as a 'comfort woman' near Shanghai. She was moved place to place following the Japanese troops and experienced the violence of losing a finger. When the war ended, she became dependent on a Chinese husband and remained in China. However, she did not receive a Chinese citizenship, so she lived as a stateless person for the rest of his life and entered Korea in 2003. How could someone possibly guess the violence she experienced. But how meaningful would it be to find her, who had forgotten her own existence in the deep mountains of China, and to bend an ear to hear about her sufferings? Finding beings forgotten in history and restoring their voices is the beginning

of efforts to no longer repeat violent history.

These are the names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again: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U.S.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sexual violence in modern South Korea, women exploited by the sexist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o came to South Korea through gender labor and migration. They should restore their lost voices to reveal the gender-based anti-peace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ven in the structure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hey must create a foundation for a peaceful future by giving meaning to the gaps they have created. And even to the cracks they have created in the structure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hey must give meaning so that they can create a foundation for a peaceful future. 

Panel I

Restorative Movement of Ukrainian Women in War

Nataliya Ulianets
President, YWCA of Ukraine

War affects women no less than men. What is it like to be a modern woman living in a beautiful, prosperous Ukraine, and suddenly lose everything, home, loved ones, security, the familiar world? But politicians and the media hardly talk about this.

Political instability and armed conflict have had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gender equality and the status of women in Ukraine. More than 6.5 million people - two thirds of them women and children - have been internally displaced since the start of the conflict, and suffer from difficult access to health care, housing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A large number of women who stayed at home lost their jobs and lost their basic livelihoods. All this seriously affects the situation with the social cohesion of society, public safety and the resilience of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negatively affecting the lives of women.

Due to limited public resources, lack of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pre-school institutions, local and internally displaced women bear the brunt of the burden of caring for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lderly family members, which also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find work.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building decision-making processes remains at a very low level. Women hold only 12% of the seats in Parliament, and make up 11% in the Cabinet of Ministers.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limited capacity to support families torn apart by war,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or women with children and elderly relatives who have been forced to leave their homes and communities as a result of armed conflict.

The seven main areas of concern for women and girls are:

immediate security threats;

lack of essentials;

loss of livelihoo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war and constant fear;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public and private places;
lack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social services; moreover, women are virtually excluded from plann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at all levels.

Therefore, we, public organizations, need to defend the priorities of all women and girls, including those from the most vulnerable groups.

4 months of war in Ukraine. How it affected our women and me?

All women reacted differently. The worst thing was for those who has small children or who are pregnant. There is only one way out - is to evacuate and escape to a safe place. I know very well what is like to run from dangerous place with a baby on my hands. I remember well how it was during the Chernobyl disaster. Now many women have gone through a lot of different feelings: shock, fear, confusion, fear of the non future. Some of the women experienced hysterica and they still can't overcome this condition. Many women and girls have hatred in their hearts. It does not allow them to live and breathe. This is sad. Because you never can fight hate with a hate.

What I learned about myself during this war...

As every person in this world, I do not know myself fully. Since childhood, I was very scared of war. It seemed to me that if the war would happened I would die of fear. As I got older I was always sure that there could be no war in my life. But it happened and I discovered some special qualities in myself. Since the first explosions of the bombs I was quite calm. I believed and still believe that I am under the protection of Almighty. I was not fall into hysteria and hatred. I just accepted the situation as it is.

I also realized that during the war life continues and you still have to take care of yourself and others. Bring small joys to your life and try not to become discouraged. Believe in the Almighty and in your strength of mind.

What do I feel on the 120 days of the war?


I am glad that me, my family and also my friends are alive. I feel tired. I really want this nightmare to end as quickly as possible. And people who were left without housing, work and livelihood could rise fast enough mentally and financially. No one have to die any more and no more blood have to be shed. Also during this war I learned that I have wonderful friends all over the world. And they are friends not in a word but in deed. That there are wonderful caring people who cannot stand aside from other people's suffering and sorrow. These people ewokes my big respect and sincere admiration. They teach me to be more attentive and sensitive.

I never give an advice unless I have gone through a similar path or experience myself. I will never understand a person without "wearing their shoes". In 2014 I did not fully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to people in the Donbass. I had no idea what they had to go through. Now I understand it very well. And my heart hurts every day from the thought that everything there can turn into ashes. I am very worried about what can now happen in the south of our country.

I remember very well what a terrible things happened in the former Yugoslavia or Syria. But at that time it seemed to me that it was far away. Later I watched a lot of informational materials about those events, and the indifference of the world scared me. That w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often silent, minding our own business. And we don't care about the fact that women and children are being killed somewhere. Now I often think about why the world is the way it is.... What is really going on? Why do wars happen? Maybe we're doing something wrong? Are we giving enough to make this world a much better place? I feel and understand that all events occur by the will of the Almighty. But after all, they happen in order to teach us something, so that we realize why we go through this or that experience.

We started to conduct joint coaching work with the YWCA of New York. Our trainers started to work online with our women helping to rehabilitate with the help of support groups. This is a very difficult and lengthy task.

Topics that concern our women

1. Depression and exit from it during the war. When you feel that you are at an impasse and do not see the future.
2. Nervous breakdowns. When anxiety, anxiety, fear and a sense of hopelessness accumulate, and at one moment it breaks through that tantrums or panic attacks can happen. What to do in such situations to get out of this.
3. Loss of loved ones, property, work during the war. How to cope when you feel weak and confused because you have lost everything that you have been going to for many years 

YWCA Palestine's Peace activities under Israeli rule

Amal Tarazi

National General Secretary, The YWCA of Palestine

About the YWCA Palestine

The National YWCA is a non-governmental association that started in Palestine in 1893 and was officially registered in Jerusalem in the year 1918. It is a union of four local associations in the cities of Jerusalem, Ramallah, Jericho and Bethlehem. It envisions free and democratic Palestinian civil society where women and youth are empowered to exercise and protect their huma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ights. It is affiliated with the World YWCA, a global movement that works for -through its members: the national YWCAs in over 100 countries in the world, for the rights of women, young women, and girls. The World YWCA holds a special consultative status at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The history of the National YWCA of Palestine is linked with the recent history of Palestine itself. After the Nakbeh of 1948, it was the first national association to provide humanitarian services for the Palestinian refugees in the refugee camps. These efforts continue to this very day despite facing a series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cluding on-going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imposed on freedom of movement especially during the first and second Intifadas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heid Wall and the consequent geographical separation and fragmentation of Palestine. The YWCA of Palestine organizes international advocacy campaigns, based on human rights principles to promote the Right of Return and self-determination of the Palestinian refugees who were ethnically cleansed by the Israeli gangs during the 1948 Nakbeh, from their cities, towns and villages. These campaigns are done with the support of YWCAs around the world, donors, and Palestinian right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Our Vision

Women and youth, particularly young women, are leading society towards change and development to help attain a Palestinian civil society where equality, freedom and social justice prevail

Our Mission

The YWCA is a national women's association that seeks to enhance and promote the role of women and youth, particularly young wome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positions in society by strengthening their leadership and initiative capacity, enhancing opportunities for their participation and gender equality in civil life, and creating a society that embodies equality, freedom, tolerance, justice, peace and human dignity

Theory of Change:

The YWCA's theory of change is based on the firm belief that our young Palestinian women - if given the opportunity and necessary support - can build a better future for all where freedom and justice prevail. We, therefore, aim to empower young women and girls by enhancing their participation in cultural, educational, and economic activities, and helping them become more aware of, and defend their individual and national rights, thus promote equal and active participation at different levels. This theory helps the YWCA to empower women and young women through intergenerational exchange of experience and knowledge. The theory of change is the basis for our matrix of goals, objectives and interventions, which is based on four main outcomes that represent the YWCA's core historic path,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interventions and tools.

Strategic Objectives:

Objective one: Economic empowerment women and young women helping them to access economic opportunities and suitable work.

This goal is manifested in programs empowering women and young women to claim their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ights and to create job opportunities through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developing entrepreneurship skills. This plan develops the strategic direction for future interventions and tools which will include intervention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serv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micro projects, in addition to providing specialized training on remote work and e-commerce.

Objective two: Social innovation contributes to building the capacity of Palestinian youth and developing local communities. Historically, the YWCA-Palestine has worked to provide a safe space for young women and men to develop, learn and become engaged in society.

The YWCA also seeks to increase the knowledge of Palestinian youth of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representation in their communities, local council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on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represent voices of youth for change. This strategic plan aims to develop these interventions by focusing on partnerships with 6 STRATEGIC PLAN 2022-2026 grassroots institutions in targeted geographical locations to implement communitybased initiatives led by youth, in addition to expanding areas of

community work for initiatives in all fields (sports, culture, arts, and tourism).

These initiatives also focus on the community entrepreneurship as additional supporting tool, as it offers an innovative new model for community work. These changes have expanded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previous strategy from a focus on social development to social innovation in interventions related to youth, women, and children.

Objective three: A society that exercises respect for human rights. In previous plans, this goal was referred to as the just peace component, which seeks to develop the capacity of women and youth, particularly young women, and strengthening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covenants,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and 2250 to enable them to contribute to achieving a just peace in Palestine. These programs are considered important as the YWCA is part of a global movement of women that aspires to expand its membership to include 100 million women by the year 2035. The current strategic plan will focus on the local dimension of lobbying and advocacy to help impleme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amend laws and procedures in line with the binding agreements of the State of Palestine, in addition to the regional dimension that will focus on working with regional YWCAs on both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Objective four: Preserving the YWCA's historic legacy and i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This goal focuses on enhanc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stainability and closer administration and programming by diversifying partnerships with donors and enhancing sources of income (operations, property, investments). This goal also focuses on interventio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ctive membership of young women in associations to ensure their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goal culminates in the development of an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operational structure, which is represented by a series of interventions related to policies, procedures, governance, and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planning.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external and internal communication plan and to activate public relations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plan.


National Development Agend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development agenda o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justice is at the heart of the national policy agenda. As such, we are committed to working on reducing poverty, providing appropriate,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the poor and the marginalized, enhancing access to justice for all while working on promoting gender equality, women's empowerment, and securing a better future for Palestinian youth. We are also committed to providing quality and inclusive education as well as comprehensive quality health care services accessible for all. We seek to promote the resilience of all Palestinians through ensuring a secure and safe environment,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providing basic needs, promoting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rough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protecting the Palestinian identity and cultural heritage.

Women peacebuilders and adapting to the COVID-19 pandemic

As we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UNSCR 1325, it is critical to recognize the central roles of women, particularly in the local communities, introducing how women under the lead of YWCA's Palestine participated in responding to their community needs under COVID, where this contributed to led a sustainable peace in Palestine.

Palestine is small Arab country located in the Middle East. Palestine is occupied since 1948 by the Israeli occupation. The West bank and Gaza have been living under Israeli military Occupation since 1967; which has been depriving the Palestinian people from having control over their everyday lives and their future. The occupation has well caused the Palestinian economy to suffer, high rates of unemployment, and high poverty. The economic situation has worsened further in 2020 with the break ou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poverty rate which is currently 29.9% continues to rise due to the in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as a result of the long lock downs. This also reflected in increasing the level of the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Work for Peace and Protection of Japanese Constitution

Sayaka Higuchi
Vice President, YWCA of Japan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valuable opportunity to speak at this Peace Forum, with YWCA sisters from around the world working on women's empowerment and peace.

My name is Sayaka Higuchi, Vice President of the YWCA of Japan, and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on Peace and Nuclear-Free World.

First of all, on behalf of all the members in the YWCA of Japan, I would like to express our heartfelt congratulations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YWCA of Korea, and deep respect for your tremendous achievements in changing the lives of women and youths, and advocating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assionate voice of the YWCA of Korea for justice and peace has always been an inspiration for us in Japan, and it has been an honor to work together in many joint programs and shared initiatives.

The YWCA of Japan was founded in 1905, and has 24 local associations in different sizes and diverse areas of work.

The work of the YWCA has a strong focus on peace throughout Japan, ever since the end of the Asia Pacific War. The YWCA's role as a peacemaker has always been a central part of our work, as is stated in our theme and vision.

This determination comes from the remorse for the time of Japanese militarist policies in the 20th Century, leading up to and during the Asia Pacific War.

During the time, the YWCA of Japan was not only unable to stop the Japanese military aggression, but was also obliged to participate in the nation-wide policy of militarism and colonialism; we stopped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YWCA, abandoning its nature as a part of a global movement, admitted the YWCA of Korea

under colonial rule to transfer into the YWCA of Japan, and founded a new YWCA in Shanghai for Japanese women. Such deeds resulted from our involvement with the Japanese militarism that caused terrible suffering on the women in the colonized countries, which we deeply regret.

We strongly believe that we should never go the same path again, and therefore have strived as a movement working for the realization of peace. We adopted "The Apology for the Asia-Pacific War and the Resolution for Commitment to World Peace" in 2009, to confirm this conviction.

Today, I wish to share the situation in Japan around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the YWCA's work in Japan to protect its spirit of pacifism and non-militarism.

The Japanese constitution came into effect on 3 May 1947, after Japan lost the World War II in 1945. With the Constitution, the Empire of Japan ended and Japan restarted as a new country. It has a strong message, with 3 principles namely pacifism, popular sovereign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following are some excerpts from the Japanese Constitution.

"We [...]resolved that never again shall we be visited with the horrors of war through the action of government, do proclaim that sovereign power resides with the people and do firmly establish this Constitution."

"We, the Japanese people, desire peace for all time and are deeply conscious of the high ideals controlling human relationship, and we have determined to preserve our security and existence, trusting in the justice and faith of the peace-loving peoples of the world."

(Preambl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states as follows: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The challenge faced now, however, is that the current Japanese administration is striving to change this Constitution.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states constitutional change as a commitment of the Party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55, and as the most powerful political party in Japan, it has pushed legislations through Diet that pave the way to constitutional change, despite widespread opposition.

In its "draft constitutional revision" in 2012,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uggests deleting the preamble pas-

sage on “peace for all time” that I have quoted, as well as significantly amending the Article 9 on the renouncement of war and military forces, among other major amendments.

This trend towards constitutional change has become sharply stronger in the past decade as the Japanese society has gone through a shift to the right wing.

The YWCA in Japan have for a long time engaged in advocacy since the 1950s, voicing opposition to Japan’s return to militarism. The actions include a nationwide ‘Conference on Constitution’, which was continued annually for 40 years from 1962, and a stage reading performance “Fortress of Peace”, which started in 1962 and was performed in multiple local YWCAs around Japan for many years. Local YWCAs have engaged in a variety of initiatives including study groups, “Constitution Cafe” to discuss and learn about the constitution and peace, advocacy campaigns, creation of information tools for children and students, even making cookies and handicrafts in the shape of 9 to uphold Article 9.

The Committee on Peace and Nuclear-Free World of the YWCA of Japan has also recently created an online infographic tool to encourage young people to vote, so as to promote awareness to their sovereign rights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The recent news of Russian invasion in Ukraine has been received widely with serious concern in the Japanese society, as must be in other countries too. There is a latest worrying phenomenon in Japan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where some people claim that the Japanese Constitution must be changed so that Japan will become able to engage in war with other countries, because in their words, “we would be unable to protect ourselves without the military in case we are invaded”. In spite of the fact that it is Japan that did the invasion in the past, and the Constitution article 9 exists so that it will not happen again. Furthermore, there is even a talk that Japan should possess nuclear weapons by what is called “nuclear sharing” with other countries.

The YWCA of Japan, as a movement of women in Japan dedicated to peace, is committed to continue our advocacy work opposing the move towards constitutional change. In doing so, working together with the global YWCA network, especially our sister YWCAs in Asian countries, is vital for us. We ask for continued solidarity in tackling this challenging situation, and once again express respect for all our sisters who are working everyday as peacemakers.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Panel IV

Peace Activities of Wome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ospect

SookJin Lee

Former Y-Academy committee member, YWCA Korea

Arrival of the New Cold War Regime and Women

As if the New Cold War era has arrived, tension and armed conflicts are steadily increasing in different corners of the world to gain hegemony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not immune to the New Cold War trend. In South Korea, which has recently joined the ‘NATO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 (NATO CCDCOE), news about the South Korean P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NATO Summit are being reported day after day, and the voices of those who believe the R.O.K.-U.S.-Japan military alliance must be strengthened are becoming louder. Such developments are threate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East Asia and will likely lead to a serious crisis.

Who are eager to see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ld War system? Who are to benefit from it all? What is clear is that tension and armed conflicts cause much more pain to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widen inequality. As we already experienced during the Cold War regime, in high tension situations, people rely more on military means, citizen participation becomes limited, and human security becomes a peripheral matter, which deepens patriarchal gender inequality and results in the regression of democracy.

That said, many experts talk about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direction of global developments. In short, we are currently at a crossroads where we may enter into the New Cold War regime in earnest or open the door to new future society with the help of the warm breeze called peace. One thing is clear: women’s role has become critical in prevent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exacerbating the tens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world powers or, domestically, in putting human security first in our everyday lives.

Woman Who Testified to the Brutality of Division

In the 1960s to the 1980s, when the military authorities/new military authorities took power, anti-communism law became the law with the highest priority in the name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t was a time when people whose family members were stigmatized as ‘Reds’ felt that they could not even breathe properly due to the

almighty guilt-by-association system. The ‘woman’ who exposed the brutality of the division ideology by confessing about how she could not moan the death of her older brother, who was called a ‘Red’ at a time people were expected to fight communism, was writer Wan-suh Park.

“Yes, my family are reds. One of my uncles was even executed because he was accused of being a red. I also don’t want to live in a country where the leaders escape on their own, abandoning the people under the rule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and then returning only to execute those who gave food to the People’s Army. Just kill me, kill me...” (Wan-suh Park, Was the Mountain Really There)

Just like how Antigone violated national law by burying the dead body of her brother, Polyneices, who was suspected of treason, Wan-suh Park became the Antigone of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she lost her chance to flee with her mother, who wanted to wait for her ‘red’ son.

“I could see the whole neighborhood as I was standing on a hill. I could also immediately find the prison where the revolutionists had been freed and my uncle executed. I couldn’t sense the presence of anyone anywhere. I could feel the goose bumps on my back as if a cold, blue knife was lightly scraping my spine. It was the fear of being left alone in the world, and it was a new kind of feeling I had never felt before. There was no one, not on the main street where you could see as far as the Independence Gate, not on the alleys, not in the houses. How is it possible that there is not one house with smoke coming out from the chimney? We were the only ones left in the big city. How is it possible that I am the only one who is seeing this vast emptiness and that we are the only ones who are looking at the imminent unknown? That is when my thoughts suddenly changed just like a fugitive who is chased to a dead end suddenly turns around. Maybe the fact that I was the only one who saw this meant something, I thought. Think of all the nasty coincidences that happened and resulted in us being the only ones left here. Yes, if I am the only witness, then I must have a responsibility to testify to what I saw. That is the due revenge that must be sought against such nasty coincidences. I must testify not only to this vast emptiness, but to all the hours I was treated as a vermin. Only then can I escape from this life of a vermin. It was a hunch that I would someday write about this. That hunch drove away my fear...” (Wan-suh Park, Who Ate All the Shinga)

Wan-suh Park and other women of the Korean peninsula who experienced the war have testified to the “appalling world where more importance was placed on ideology than on people” for around 70 years since the ceasefire of the Korean War.

YWCA Korea, the Hub of the Peace Movement

It was in the 1980s when the military force of the New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counterviolence of activists

were rampant that the history of the YWCA Korea’s peace movement began. Starting with the national midday prayer meeting ‘Use Us As Workers for Love and Peace’ in 1982, the YWCA Korea has focused on education to foster future peacekeepers under the YWCA reconstruction plan in the North Korean areas before division (1986), whose activities include the Knowing North Korea Right Movement,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publication of teaching materials on peaceful unifica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peace education at daycare centers across the country, peace camps for teenagers, etc. What is more, the YWCA Korea’s Helping North Korean Children Movement (which started in 1996) has donated powdered formula and cotton masks to North Korean children through the ‘Donate One Tenth of Your Food Expense to North Korean Children’ campaign, with the belief that even North Korean children are our children. Although the YWCA Korea has faced ups and downs in these activities due to the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it is still expanding its support and cooperation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children, and women of North Korea and maintaining its direction of striving to expand mutual understanding and emotional unification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According to John Lederach, “successful peacebuilding can be difficult when relying only on national-level diplomacy that tries to address the issues of a conflict if the groups in conflict are located close to each other, the members of the conflict share a common history, and the groups have serious stereotypes of the other due to their strikingly different perception of each other resulting from the prolonged conflict.” In short, this means that reconciliation, which recovers and rebuil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two groups, must be at the center of peacebuilding. The YWCA Korea is planning and implementing many programs to recover the relationship of such groups in conflict.¹⁾ In the ‘YWCA Women Peace Pilgrimage: from Halla to Baekdu’ program, peace pilgrims went up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to determine themselves to heal the pain of division and to pave the path to peace each year from 2017 to 2022. In addition, it has hosted the ‘Peace Forum on the Street,’ Women Peace Forum, etc., which are programs for deepening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South Korean citize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fostering peace activists. Through ‘WCD (Women Cross DMZ) International Women’s Walk for Peace’ (2015), the YWCA Korea was able to confirm the potential energy of women’s peace movement. Hundreds of members from 52 regions came together to create a patchwork of 1,000 pieces of cloth that symbolize harmony and peace and urged the world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walking the DMZ while holding hands with other South Korean and foreign women. The ‘Korea Peace Now’ campaign (2019), which began in 2019 through the cooper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women’s groups, is creating real results, such as visiting the U.S. Congress and engaging in civic public diplomacy with the U.N., and is upholding women’s solidarit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orld.

To carry out the mission of the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https://endthekoreanwar.net>)’ (2020)

1) John Paul Lederach, translated by Dong-jin Kim, Building Peace, Humanitas, 2012.

여성평화기도회


together with 380 domestic and foreign groups, the YWCA Korea has planned and implemented the Peace Challenge, the Peace Monday Street Campaign, and Member Y Education, among others. At the World Council of the World YWCA held in Johannesburg (2019), the YWCA Korea was able to confirm the support and solidarity of the YWCAs of 109 countries through the passing of the resolution that called for the termination of the Korean War,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and support for North Korean women with overwhelming support.

Also, the YWCA Korea's peace movement has demonstrated exceptional potential in the post-nuclear movement. On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it adopted post-nuclear as one of its main movements (2014) and has informed people walking on the streets of Myeongdong of the importance of getting rid of nuclear power plants every Tuesday at noon for around five years since 2018. It has also carried out the Post-Nuclear Day of Fire Campaign in front of the YWCA Korea building every fourth Tuesday of each month from 2019 to 2020.

The Future Path of Women's Peace Movement

The Greenham Common base's withdrawal of nuclear weapons in 1991 was the result of women's continuous peace movement carried out since 1981. It started out as a small movement of 38 women, but the second round of protests of 30 thousand women would not have happened and no solidarity would have been formed between European and American women if it wasn't for the first protesters. Of course, there are those who interpret the Greenham Common base's withdrawal of nuclear weapons and closing of its base as the byproducts of the rapid change in international affairs. People who maintain this perspective have deemed that peace in South Korea, i.e.,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and defense spender and the world's 6th strongest military power, depends on the world powers or have regarded women's peace movement as wasteful.

However, women's peace movement has the power to overturn militarism. As mentioned above, various circumstances today make us think that maybe we are entering the New Cold War regime in earnest, but the peace movement of South Korean women can turn this direction around. The beginning of the YWCA Korea's peace movement may have started out small with the midday prayer meeting, but the voices of the various women who have come together under the name of peace movement in the last several years can become a great force against totalitarianism.

To become peacekeepers, we must, on the one hand, urge military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to adopt policies for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policy documents and studying those documents together, we must actively engage in policymaking by pressuring policymakers to repeal policies that threate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ffering our perspectives on gender justice. On the other hand, we must perform our responsibility as the actors of peace by carrying out the 'YWCA Women Peace Pilgrimage: from Halla to Baekdu,' the 'Peace Forum on the Street,' the post-nuclear movement, etc., as we have done to this day until human security becomes a part of everyday life on the Korean peninsula. 

여성평화기도회

떼제 찬양 배우기

신한열 수사

- 여는 이야기 1 여성인권,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
- 여는 이야기 2 1950년 6월 25일 조선YWCA 기록
- 여는 이야기 3 통일촌에 살고 계시는 경선봉 할머니 이야기
- 여는 이야기 4 2022년 6월 25일 우크라이나YWCA 회장의 글

찬양

주님을 찬양하라

다함께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Lau - da - te om - nes gen - tes, lau - da - te Do - mi - num. Lau -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da - te om - nes gen - tes, lau - da - te Do - mi - num. Lau -

시편의 말씀과 찬양

여성시편 85편과 알렐루야11

말은이들

하나님 이 민족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소식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춥니다.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정의가 우리 앞에 앞서가며 평화가 우리 갈 길을 닦을 것입니다.
 생명누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 야
 (Al - le - lu - ia) Al - le - lu - ia, al - le - lu - ia, al - le - lu - ia! (Al - le - lu - ia)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4:27-31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 자, 일어나 가자.

침묵

중보기도와 찬양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위한 중보기도

이제 남과 북이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포하게 하소서. 분단선을 넘어 이 땅 한반도에 생명의 바람 불게 하소서.

미얀마의 자유를 위해 분투하는 자들과 함께하소서. 당신의 정의가 미얀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전쟁 속 위태로운 생명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평화 주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Musical score for Kyrie Eleison with lyrics: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Ky-ri-e, Ky-ri-e e-le-i-son.

찬양

주님 나라는

Musical score for 'The Kingdom of God' with lyrics: 주님 나라는 의와 평화 성령안에 있는 기쁨... The king-dom of God is jus-tice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Musical score for 'Come, Lord' with lyrics: 주님 열어서주소서 그 문 우리안에 주... Come, Lord, and o-pen in us the gates of your- king-dom. The

말은이

다함께

말은이들

다함께

찬양

내 영혼이

다함께

Musical score for 'My Soul' with lyrics: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me-a Do-mi-num.

마침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당신을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꾼의 손이며,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손이며, 북한 주민의 손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손이며, 미얀마 사람들의 손입니다. 이제 이 손을 놓지 않고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손 함께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사망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은이

찬양

사랑의 나눔

다함께

Musical score for 'Love Sharing' with lyrics: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U-bi-ca-ri-tas et a-mor, u-bi-ca-ri-tas De-us i-bi-est.

주제곡

조각보

다함께

다짐과 파송

평화의 인사

다함께

“평화를 위해 나아갑시다” “생명을 살리는 여성이 됩시다”

100주년 기념사업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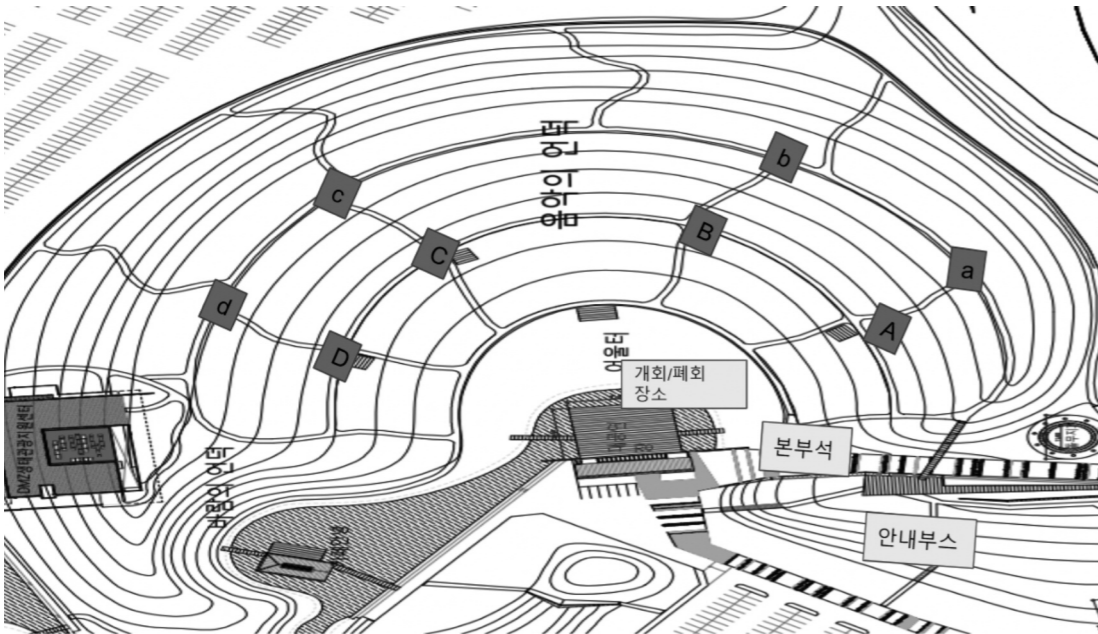
2022 여성평화 순례

2022 YWCA 여성평화순례 안내

<p>오프닝</p>	<p>평화를 열다 YWCA 여성평화기도문 낭독 2022 YWCA 여성평화선언문 낭독 '조각보' 노래 합창</p>
<p>함께하는 평화 순례(코스) 총 60분</p>	<p>① 평화를 만나다 2017~2021년 평화 선언문 낭독</p> <p>② 평화를 바라보다 평화의 메시지와 함께 사진 촬영</p> <p>③ 평화를 꿈꾸다 평화의 메시지 전달</p> <p>④ 평화를 외치다 평화를 소망하는 기도 순례</p>
<p>퍼포먼스</p>	<p>한반도 기 위에서 우산 퍼포먼스 진행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합창 '조각보' 노래 합창</p>

YWCA 여성평화 순례 코스 안내

포스트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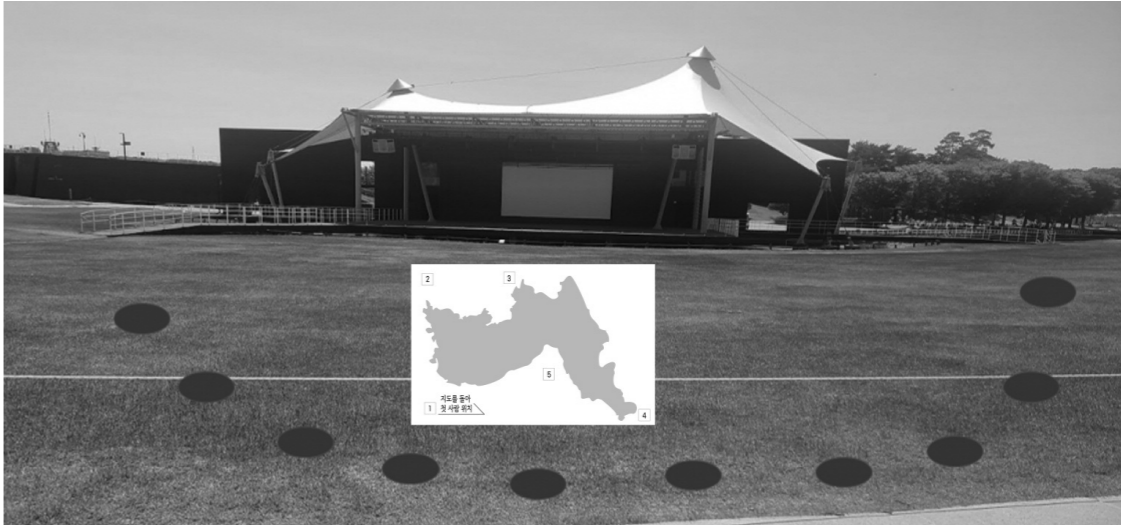


조별 포스트 진행 코스

구분	9:20~9:35	9:35~9:40	9:40~9:55	9:55~10:00	10:00~10:15	10:15~10:20	10:20~10:35	10:35~10:40
1조	A	정리 및 이동	B	정리 및 이동	C	정리 및 이동	D	정리
2조	B		C		D		A	
3조	C		D		A		B	
4조	D		A		B		C	
5조	a	b	c	d	a	b	c	d
6조	b	c	d	a	b	c	d	a
7조	c	d	a	b	c	d	a	b
8조	d	a	b	c	d	a	b	c

- 각 팀은 위의 순서에 따라 이동합니다. 각 팀 별로 운영 시간을 지켜주세요.
- 팀의 모든 사람이 모이면 시작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활동을 마칠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세요.
- 이동 안내 멘트가 나오면, 포스트 담당자 안내에 따라 다음 코스로 이동해주세요.

한반도기 퍼포먼스



- ① 타원형의 왼쪽 첫사람부터 지도의 바깥쪽부터 걸어서 화살표 위치하여 한반도 테두리에 서주세요(간격 약 1.2m)
- ② 그 다음 사람부터 지도안 위쪽부터 채워 주세요 (간격 1.2m)
- ③ 지도 안이 다 채워지면 지도 바깥쪽으로 두바퀴를 돌아 두 줄을 추가로 더 돕니다

YWCA 여성평화순례 소개

한국YWCA는 2017년부터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한 평화의 비전을 수립하고 여성의 평화운동력 확산을 위해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YWCA 여성평화순례를 통해 한반도 내의 평화감수성이 향상되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을 이루고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운동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한라산, 백록담에서 평화를 열다.

한국YWCA 창립 95주년을 맞아 95명의 평화순례자가 평화의 섬 제주 한라산에서 여성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씨앗을 뿌리겠다는 소망을 담아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또한, 제주의 가슴 시린 역사로 남아 있는 ‘제주4.3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제주 4.3 평화공원을 탐방하고 관련 강연을 통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숭한 시련을 이겨내며 아픈 역사를 평화 인권의 가치로 만들어내고 있는 제주 여성들의 삶과 노력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어머니 산, 지리산에서 평화를 외치다.

2018년 여성평화순례는 광주YWCA가 주관하여 지리산 일대와 광주 5.18 민주묘지, 소심당 조아라기념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이념갈등의 최대 비극의 현장이었던 지리산과 광주에서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하나였음의 기원, 평화를 꿈꾸다.

서울YWCA에서 주관한 2019년 여성평화순례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고려인, 재미동포 등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태백산 등반 순례길에 동행하여 평화통일의 주체로서 한민족 여성의 역할 인식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평화를 바라보다.

2020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참가자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홀로 걷는 평화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상처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갈등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치유와 화해를 도모하며 일상의 순례길을 통한 평화의 일꾼으로서 결단과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드디어 평화를 만나다.

코로나19 재 확산의 영향으로 2021년에도 ‘홀로 걷는 평화순례’로 진행되었습니다. 평화의 순례자들이 오솔길, 들레길, 등산길 등 자신의 지역 인근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순례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32개 회원YWCA에서 119명이 홀로 걷는 평화순례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참여자가 1만보 이상을 걸으며 총 124만 4천219걸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2022년,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다.

2022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국제여성평화포럼과 2022 YWCA 여성평화순례를 통해 2017년 시작된 YWCA여성평화순례를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 평화비전을 확립하여 세계YWCA 회원국들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한 여성들의 메시지를 전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2017 YWCA 여성평화선언문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언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상황에 익숙해졌지만 2017년 현재와 같이 전쟁의 기운이 팽배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북-미 간의 호전적 '말' 전쟁은 이제 실제적인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YWCA가 여성 평화순례를 시작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의 한라산에서 출발하여 '민족의 성산'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평화를 염원하는 순례를 시작합니다.

평화와 생명은 한 몸입니다. 평화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에 살고 있는 8천만의 생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 귀하게 태어난 존엄한 생명들입니다. 그 존귀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전쟁은 어떤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지구적인 평화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여 남북한 휴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강력한 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YWCA 여성평화순례단은 한국YWCA 2017년 95주년부터 2022년 100주년까지의 '한라-백두' 평화순례를 시작하면서 모든 여성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통일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아래의 선언이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 1.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전쟁을 단호히 반대한다!
- 1. 남북한과 주변 4대 강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 1. 북한과 미국은 상호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2017년 10월 27일

2017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참가자 일동

2018 YWCA 여성평화선언문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반도 분단 70년 만에 새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난 남과 북의 두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비핵화를 위한 단합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YWCA 평화순례단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걷는 한민족 여성평화순례의 길은 더욱 감격스럽고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2017년 평화의 섬, 제주의 한라산 순례에 이어 올해에는 미국, 중국 재외동포 여성들의 염원까지 모아 한반도 동서를 잇는 지리산순례를 시작합니다.

평화와 생명은 한 몸입니다. 평화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 주민 8천만의 생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 귀하게 태어난 존엄한 생명들입니다. 그 존귀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전쟁과 갈등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전 세계 평화의 보루입니다. 3차 정상회담의 성과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우리는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2천 년 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평화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한민족 여성들은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 없이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 남북 여성들이 함께 백두산에 올라 가슴 벅찬 평화의 외침을 외칠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평화순례를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여성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YWCA 여성평화선언이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 1.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한민족 여성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 1.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 여성간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오랜 고통과 상처의 역사를 치유와 희망의 역사로 바꾸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 1. 우리는 남북간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위한 민간차원의 상시협의 기구가 마련되어 다양한 민간교류협력의 지속되기를 바란다. 한국YWCA는 민간대북지원단체로서 정부의 남북교류 행보에 발맞추어 한반도 평화의 길목에서 평화가 완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0월 1일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 순례자 일동

2019 YWCA 평화선언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한반도는 변화의 도상에 있습니다. 2018년 이루어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이루어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는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으로, 오랜 전쟁의 기운을 평화의 물결로 변혁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힘과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주와 독립, 정의와 평화 실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국제적 비폭력평화운동의 의미를 기억하며, 정의·평화·생명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이 시대의 절대적 사명을 되새겨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단순히 남북의 안위와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계를 확립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임을 천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평화와 불안의 연속으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평화,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평화를 향해, 이 순례의 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순례는 절대자와 깊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남단 한라부터 최북단 백두까지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임을 확신하고 역사의 증언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 앞서 산에 올라 피눈물로 기도했듯이 우리는 이 등정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순례는 삶 전체에서 일어나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산 위에 정주하지 않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순례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순례가 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 1.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운동을 지속해나간다.
- 1. 우리는 남북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고통과 분단의 역사를 화해와 평화의 미래로 바꾸어 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1. 우리는 남북 민간 차원의 상시 협의 기구 마련을 통해 다양한 민간교류 협력을 지속하며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일에 적극 동참한다.

2019년 10월 2일

YWCA 한민족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 태백산 순례자 일동

2020 YWCA 여성평화선언문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요한계시록 21장 5절)

1950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과 북에 참혹한 상처와 고통을 남겼고,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채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분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깊은 갈등과 증오를 낳았고, 한반도를 대결과 분리의 질서 속에 가두어놓았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의 자주적인 해결에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2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과 북의 문은 닫혀있으며 반목과 오해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깊은 상처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입니다. 분단 체제에서 고통과 희생을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적대적 분열과 혐오의 확산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폭력 순환을 단절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참회와 용서를 통한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한 번의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더불어만 들어감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앞에서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몸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완전한 화해자가 되신 예수의 삶을 따라, 한반도의 깊은 아픔의 현장으로 들어가 평화를 향한 변화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오래된 가치의 소중함을 성찰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관계성을 통해야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변혁적 전환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에 상생과 공존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은,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개인과 전 사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변혁적 순례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한국YWCA는 새로운 100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변혁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의 축이 될 한반도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자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 1. 우리는 국내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1. 우리는 시민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상처와 고통의 역사를 온전히 회복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동참한다.
- 1. 우리는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행동에 연대한다.

2020년 10월 15일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20년 설악산 순례자 일동

2021 YWCA 여성평화선언문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로마서 12:18)

2021년은 광복 76년, 남한과 북한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지 73년이 경과된 해이자,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및 '남북 UN 동시기입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 핵 위협 등 불안요소가 남아 있고,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평화’는 모든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로마서 12:18)”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개별적·집단적·공적인 모든 영역에서 생명을 회복시키며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소명이며,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창립 100년 역사의 문 앞에서 있는 YWCA는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YWCA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순례자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의 축이 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I.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국내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상생과 공존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I.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남북의 민간교류 협력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평화 물결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일에 적극 동참한다.
- I. 우리는 시민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다지는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021년 10월 14일

2021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순례자 일동

2017~2022 YWCA 여성평화순례 참가자 명단

2017년 한라산 참가자 명단

*굵은체는 평화순례단 (95명)

강선임 강인순 고미연 곽지영 구광모 권한별 김 진 김 형 김경희 김귀옥 김길선 김말숙 김미정 김선숙 김선옥 김선형 김선희 김성아 김성이 김수연 김수진 김숙자A 김숙자B 김숙환 김신희 김영자 김은경 김은영 김은주 김정민 김정애 김정열 김태연 김형남 남상인 도말순 리해숙 마순희 명진숙 문권희 문상순 문영심 문영희 문진숙 민혜원 박문경 박세천 박소현 박영미 박영선 박영옥 박용옥 박은실 박정순 박해나 박현미 박현주 박혜란 반혜영 배민희 배영란 배영자 배정미 백미영 백보람 백혜진 부서연 서옥희 서희전 성명희 성인심 손서정 손애령 손지수 손춘옥 손혜원 송록희 신 선 신미화 신미희 신성희 양진화 오 연 오영란 원영희 유성희 유영은 윤명선 윤정순 이 선 이경화 이기옥 이명혜 이미순 이복희 이신선 이영희 이유림 이정숙 이정필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진용 이춘희 이해경 임명옥 임영란 임정란 임주현 임희영 장미란 장영순 전점숙 전혜옥 정 옥 정상숙 정순영 정지운 정진화 조숙자 조순형 조애숙 조종남 주미란 차경애 차정희 차혜영 천유란 최선화 최성재 최옥순 최은주 최형선 하행여 한미미 한영수 한윤덕 함희경 허미란 허애자 허영미 홍숙영 홍순옥 홍인숙 (총 145명)

2018년 지리산 참가자 명단

*굵은체는 평화순례단 (96명)

강민아 강은혜 강태경 고명정 고성란 공은혜곽성숙곽수현 권경미 권부남 김경민 김경임 김경희 김길선 김남희 김말숙 김명희 김미현 김미화 김보현 김상은 김서은 김선옥 김선화 김선희 김성아 김성이 김세화 김수진 김순자 김신영 김신희 김애영 김연희 김옥순 김옥실 김은경 김은숙 김은주 김인영 김자영 김재신 김정민 김정숙 김창복 김태숙 김태연 김 형 김형남 김희정 나인형 남녀경 노성희 노인자 도말순 류경화 류인숙 리옥자 마순희 문상순 문윤희 민금복 민혜원 박 선 박광복 박동순 박수정 박신희 박연국 박영미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은정 박정순 박정하 박진선 박현미 배금주 배민희A 배민희B 배영란 배정미 백보람 백운미 백혜진 서금순 서옥희 서정순 서해인 서형원 서혜연 서희전 성지영 손모아 손애령 손예지 손유영 손혜진 송록희 송옥진 송정임 신미화 신미희 신보미 신성의 신정원 신현주 양선희 양진화 엄에스더 오경혜 오숙현 오 연 오은숙 우미강 우영숙 원영희 유덕순 유도희 유성희 유영은 윤성자 윤영희 윤정순 이계영 이금자 이기순 이명자 이선주 이수진 이영희 이은경A 이은경B 이은미 이정선 이종임 이종경 이진용 이춘희 이해경 이해정 이효숙 임경진 임국희 임영란 임정란 임희영 장미란 장삼희 장선희 장세순 장승숙 장정순 장현옥 전문희 전배자 전인영 전혜옥 정미남 정성옥 정순영 정연희 정영애 정 옥 정윤순 정은미 정은영 정은하 정준순 정지운 정현주 정혜원 정희심 조경희 조봉자 조정현 조종남 조춘옥 지복임 지현주 지혜경 차경애 최남숙 최명진 최명희 최선화 최양남 최옥순 최윤정A 최윤정B 최은아 최정선 최정숙 최종예 최춘화 최현자 표경자 하선규 하행여 한미미 한영수 한윤덕 함옥인 허미란 허영미 홍국희 홍성현 홍숙영 홍인숙 황분순 황상선 (총 212명)

2019년 태백산 참가자 명단

*굵은체는 평화순례단 (97명)

강민아 **곽성숙** **곽수현** 권경미 김경순 **김경화** 김경희 김광자 김길선 김말숙 **김명자** **김명희** **김미경** **김미현** 김민선 **김발레리아** **김보민**
김빅토리아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아 김순태 **김신희** **김아나스타샤** 김애영 **김양선** **김영숙** 김영자 **김영화** **김예리** 김옥순 김은주
김용주 **김유경** **김윤정** **김은경A** 김은경B **김은희A** **김은희B** 김자영 김재신 **김주희** **김지나** 김춘화 **김타티아나** **김태영** **김현숙** **김현일** 김 형
 김형남 **김혜경** **김혜숙** **김혜옥** **김희숙** 김희정 노인자 **돌랍수렌** 마순희 문상순 문영심 **문윤희** **민혜경** 박선 **박경옥** **박미숙** **박미용** **박성희**
박순영 **박슬기** 박영옥 **박을가** 박은정 박정순 **박정윤** **박진선** 박창남 **박현주** **박혜리** **방계자** **배덕임** 배민희 배영란 **배은경** 배정미 백혜진
 서옥희 서정순 서해인 **성지희** 소현영 **손은서** 손춘옥 **송길례** **송록희** 송정임 신성의 신정원 **신청하** 신현주 **신희자** **안미숙** **안미진** **안정희**
 양선희 양진화 엄에스더 여지희 **연선희** **염현경** 오경혜 **오선숙** **오은숙** **오점희** 우미강 **우영숙** 원영희 유경훈 **유복순** 유성희 **유승분** **유영자**
윤성자 **윤정애** 이경희 **이규숙** 이명자 **이미경** 이미순 이복희 **이선엽** 이승희 이애선 이예진 이유림 이정선 이종경 **이종미** 이종임 이춘희
 이현주 이해정 임경진 임정란 장미란 **장영옥** **장옥현** 전배자 전지혜 **정경옥** **정서연** **정순영** 정지운 정진화 정희심 **정희주** **조남덕** 조봉자
조연행 조은영 **조정현** 조종남 **조철숙** 차경애 천금순 **최명희** **최 봄** 최선화 **최수산나** 최옥순 **최정순** **최지영** **최혜숙** 최효순 **테나탈리아**
표효순 하선규 하행여 한미미 한영수 한윤덕 **한혜영** **현명금** 홍국희 홍 성현 **홍숙영** **홍인숙** **홍하늘** **황경희** **황정원** (총 190명)

2020년 홀로걷는평화순례 평화순례단 명단 (98명)

강둘아 강류안 강명순 고혜정 **곽옥선** **곽효정** 구정혜 **금후자** 김경하 김경희 김광희 김귀정 김명희 김미선 김미정 김민경 김민숙 김민주
 김선아 김신애 김영숙 김예은 김오복 김옥경 김유미 김윤경 김은영 김정아 김지인 김춘화 김태진 김혜숙 남궁혜경 남다원 노은미 마정심
 박경진 박성실 박연희 박영희 박현숙 방정원 백수미 백용애 서성심 성인순 송순이 신기숙 신은경 신재화 신현아 안미리 안소진 엄금자
 여진경 오영란 옥은정 이경애 이경자 이경희 이귀선 이길화 이 레 이리자 이선미 이상애 이수진A 이수진B 이영숙 이영순 이예림 이예림
 이윤숙 이정선 이정희 이주영A 이주영B 이지윤 이현순 이희경 장수빈 장은정 전윤진 전희영 정명혜 정미숙 정선덕 정수경 정은영
 조은숙 조입분 차경희 최윤정 한영란 함정실 황기숙 황상선 황성연

2021년 홀로걷는평화순례 평화순례단 명단 (99명)

가애영 강은진 고미연 **곽성숙** 구정혜 권현진 기미라 김남희 김단영 김덕순 김문진 김미경 김민주 김선진 김선화 김성이 김소희 김송희
 김수정 김신향 김애영 김영미 김은주 김재신 김재은 김정한 김지숙 김태경 김희경 김희숙 노은미 류수진 류인숙 민혜진 박슬기 박은경
 박지현 박필순 박현아 반혜영 방계자 서하람 손예지 송순이 신은미 신정원 양선희 양유정 우진주 원영희 원정희 유성희 유예은 윤송희
 윤인주 이가연 이경희 이난주 이미순 이복희 이수아 이영해 이예린 이예림 이옥수 이왕희 이유림 이은영 이은희 이한빛 이희경 임정란
 장명자 장미란 장세순 장옥현 장혜선 전문희 정명숙 정수경 정은하 조명화 조아라 조연신 조은숙 조은영 조현경 조현숙 지현주 최옥순
 최정순 최한나 표효순 한윤덕 한주희 한현정 한혜영 **홍숙영** **황혜정**

2022년 100주년 평화순례단 명단 (100명)

고마음 고미연 **곽수현** 권미영 **금후자** 김경림 김광실 김래정 김문진 김미숙 김미애 김미희 김상미 김성이 김성희 김소현 김신희 김애련
 김애자 김연희 김영숙 김예랑 김예지 김인애 김주원 김지숙 김현진 김형남 김혜연 김혜진 남여경 노은미 노은정 류인숙 문영심 박선영
 박선주 박연희 박지인 박진화 박희정 반혜영 백수미 백운순 서하람 손계영 신정원 양명희 양진화 엄정옥 유에스더 유인숙 윤선희 이경미
 이경애 이광실 이드림 이명자 이상진 이수복 이숙희 이순옥 이슬기 이신애 이영순 이윤재 이재경 이진주 이현순 이해경 이해련 이희정
 임은희 임행심 임현숙 장명자 장세순 전은주 전점숙 전희영 정명숙 정미숙 정혜원 정혜인 조은지 조혜숙 지해경 최경선 최경옥 최옥순
 최향숙 표신희 하행여 한현정 한주희 **홍미경** **홍성주** **홍수진** **홍현정** **황수미**

YWCA 여성평화기도문

주님께서 세우신 YWCA가
100주년을 맞아
8만 회원이
여성평화순례를 합니다.

주님이 앞서 걷는
통일의 길을 따르기 위해
오만과 편견을 벗으렵니다.

색동 조각보의 다채로움
북녘 땅에도 이어지게
마음의 지경을 넓히렵니다.

주님과의 사귀이 사랑이 되어
모든 다른 이에게

한라에서 백두에 가득 찬
성령의 기운이
세계평화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창조질서의 보전을 평화로 일구어내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각보

글 / 윤명선
곡 / 이원진

한 조각또한 조각 만든 조각보
우리가함께 걷는 발걸음 마다

그 옛날 생명의 숨 다시 열 리 네
온 세계 울려 퍼진 평화의 소식

높고 어두운 슬픔의 벽을
색동 조각보 하늘 감싸 니

무지개 사랑으로 살려 내 리 라
어 울려 사는 삶을 살 아 가 리 라

어 울려 사는 삶을 살 아 가 리 라